

[일본 산업 들여다보기]
초고령사회 주역은 '시니어'
시니어 돌봄케어

장기전략리서치부 | 2025.03.31

책임연구위원 나미선
misun.na@daishin.com



Contents

Summary

Part 1	시니어케어 시장의 폭발 성장	
I.	들어가기에 앞서	06
II.	성장 드라이버 (Opportunity)	12
III.	성장 저해요인 (Threat)	26
Part 2	日 정부 · 기업 동향	
I.	정부 정책 방향	38
II.	기업 사업 환경	46
III.	기업 사례 (Case Study)	52

Summary

2025년 한일 모두 고령화의 새로운 변곡점 맞이 – 시니어케어 시장의 폭발 성장 (Opportunity)

2025년은 한일 양국 모두 고령화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일본은 1차 베이비부머인 단카이세대가 전원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로 진입해 고령화율은 30%로 상승하고 본격적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 아직 노인비율은 낮지만 문제는 속도다. 앞으로도 매년 65세로 진입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대기중인데 전례없는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후 고령화율이 30%가 되기까지 일본은 20년이 걸렸으나 우리는 일본의 2배속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앞으로 10년후인 2035년에 우리사회는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할 전망이다.

본 자료는 폭발적인 Q(고령인구)의 증가로 구조적 성장이 담보되는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 드라이버와 이면에 존재하는 저해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작성했다.

액티브 시니어의 다음 단계인 케어 시니어를 위한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 우리사회에 주어진 골든타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0여년간의 일본의 경험치를 자료에 담아봤다.

시니어케어 시장 성장의 저해 요인 (Threat) – 日 정부와 기업 사례

고비용(개인·정부)과 인력부족(노동수급·노동환경)은 돌봄케어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점진적 개혁, 외국인 인력 도입을 통한 노동력 양적 공급과 업무방식개혁관련법 제정(2018)을 통한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비용과 인력난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 방향성과 결을 같이하며 사회적 과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Lessons)

2000년 이후 일본의 시니어케어 시장 변천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1) 한국의 시니어케어 시장은 초기에는 재가요양서비스(재택형)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방문형과 데이케어시설(일명, 노치원)과 같은 통원형, 복지용구대여가 모두 재가요양서비스에 해당한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시설형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시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니어들의 건강상태와 경제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케어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계획(노인커뮤니티케어)을 지속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업들과 관련 서비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의 시장 진출과 중소기업장 M&A를 통한 시장 재편 불가피

일본은 201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M&A를 통해 자본력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들이 돌봄케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계 재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ICT,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우리는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대기업과 중소형 돌봄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질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Part 1. 시니어케어 시장의 폭발 성장

I. 들어가기에 앞서

2025년 한일 모두
고령화 변곡점 맞이

2025년은 한일 양국 모두 고령화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일본은 1차 베이비부머인 단카이세대가 전원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로 진입해 고령화율은 30%로 상승하고 본격적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 원년이 되는 해로 한국인 5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 일본은 일본 전체 인구의 20%인 2,200만명 인구가 75세 이상으로 일본인 5명중 1명은 75세 이상, 4명중 1명은 80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가 되었다.

크리티컬 매스

노인인구 30%가 가지는 의미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라는 용어가 있다.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 질량을 의미하며 물리학에서 시작된 개념이나 현재는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도 널리 차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임계 질량으로 번역된다.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를 말하며 회사의 이익을 넘어가는 손익분기점이나 수학에서 쓰이는 변곡점이란 용어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듯하다.

크리티컬 매스 법칙에서 30%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구체적인 숫자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바뀌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하는 2025년 이후 일본 사회는 어떠한 식으로든 분명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韓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한국은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독 베이비붐 기간이 길었다. 약 20년간 진행된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2020년부터 차곡차곡 노인인구로 들어서면서 고령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 아직 노인비율은 낮지만 문제는 속도다. 앞으로도 매년 65세로 진입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대기중인데 전례없는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후 고령화율이 30%가 되기까지 일본은 20년이 걸렸으나 우리는 일본의 2배속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앞으로 10년후인 2035년에 우리사회는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할 전망이다.

일본내에서도 후기고령인구가 급증하는 2025년에 대비가 되어 있는건지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한국은 짧은 기간안에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어느때보다 일본을 봐야하는 시기이다.

韓 케어시니어 급증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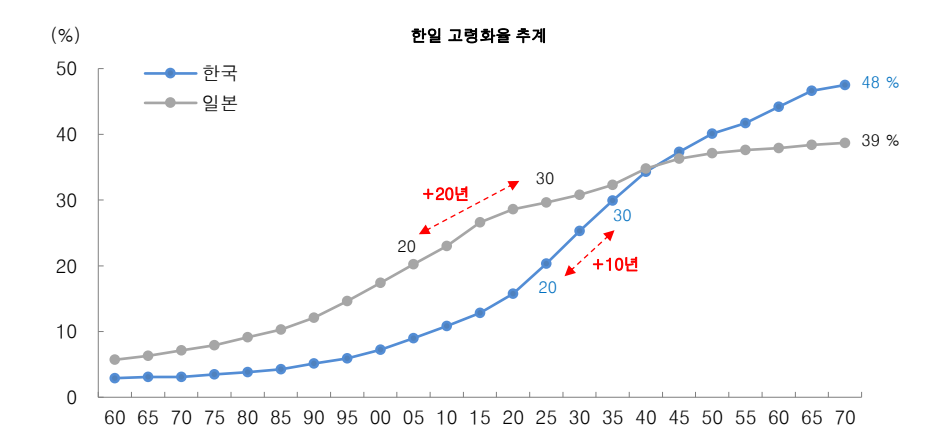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산업군은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으며, 시니어 연령대별로 필요로 하는 제품,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도 후기고령기로 접어들수록 돌봄케어서비스와 치료를 위한 의로서비스를 받을 일이 늘어난다.

폭발적인 Q(고령인구)의 증가로 구조적 성장이 예견되는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 드라이버(Opportunity)와 이면에 존재하는 저해 요인(Threat)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액티브 시니어의 다음 단계인 케어 시니어를 위한 준비가 절실한 한국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림 1. 2025년은 한일 양국 모두 고령화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는 해



주: 총인구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 고령화사회는 고령화율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사회
자료: 한국 통계청(2023년 12월 공표), 일본 국립사회보장연구문제연구소(2023년 추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1. 시니어 산업 카테고리

1) 의료·의학 산업 (Medical·Health)	① 서비스: 의사 등의 인건비, 조제보수 ② 의료기구: 진단기기, 치료 및 수술기구 ③ 의약품: 치료약, 진단약, 예방약 ④ 시설관련비용: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2) 돌봄·케어 산업 (Care Service)	① 재택케어: 방문, 통원서비스, 케어예방지원, 복지옹구 ② 지역밀착형케어: 치매고령자 그룹홈 ③ 시설케어: 케어서비스, 입주·시설관련비용	개호보험 적용
3) 생활 관련 산업 (Life Style)	① 식료품: 식료품 제조업, 음식점 ② 가구·가사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③ 의류·피복: 섬유업 ④ 교양·오락: 교육, 서비스업 등	

주: 일본의 개호보험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日 시장규모

日 시니어케어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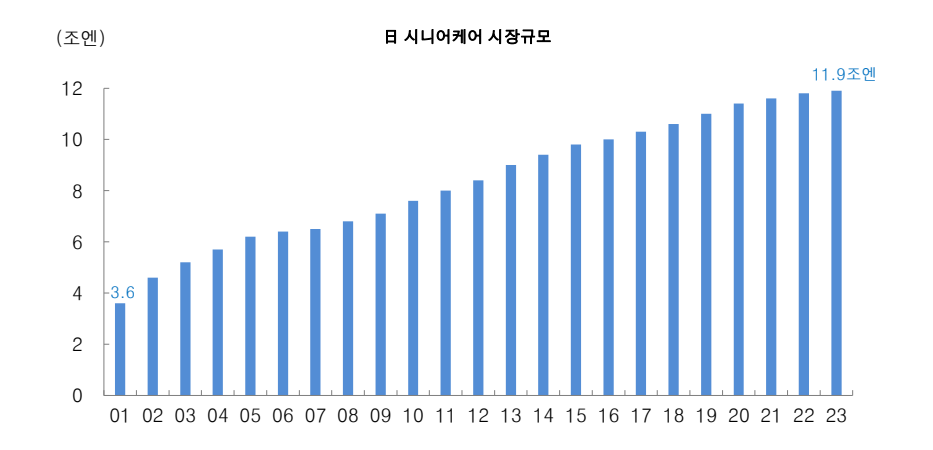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케어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일본의 시니어 케어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개호보험은 고령화 심화, 1인 노인가구 증가로 노인 돌봄케어를 가족들에게만 떠넘길 수 없게 되자 사회 전체가 고령자들의 돌봄과 케어를 책임지자는 사회보장제도 개념이 도입된 것이며,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델삼아 한국은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2000년 개호보험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여 시장규모는 도입 당시 대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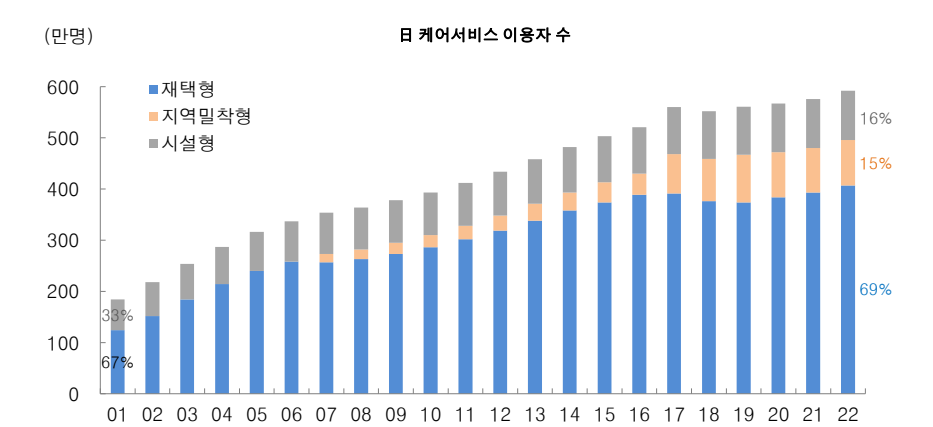
* 개호(介護, 옆에서 돌봐줌)란 돌봄, 간병, 케어, 요양보호 등을 뜻하는 일본어

그림 2. 日 2000년 개호보험 도입 당시 대비 시장규모는 3.3배 증가



주: 개호보험 총비용 추이, 매년 3월말 시점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日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서비스 이용자 꾸준히 증가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韓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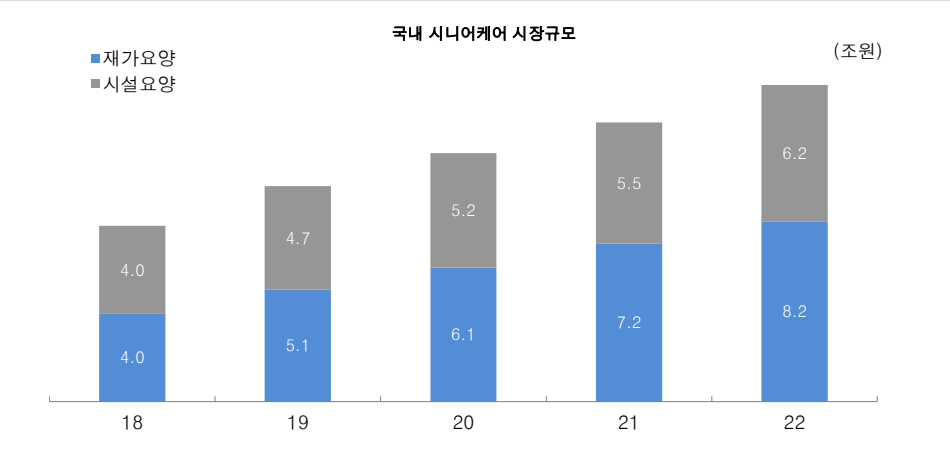
韓 시니어케어 시장규모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돌봄케어 시장은 연평균 1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 8조원 규모였던 시장이 2022년에는 14조 5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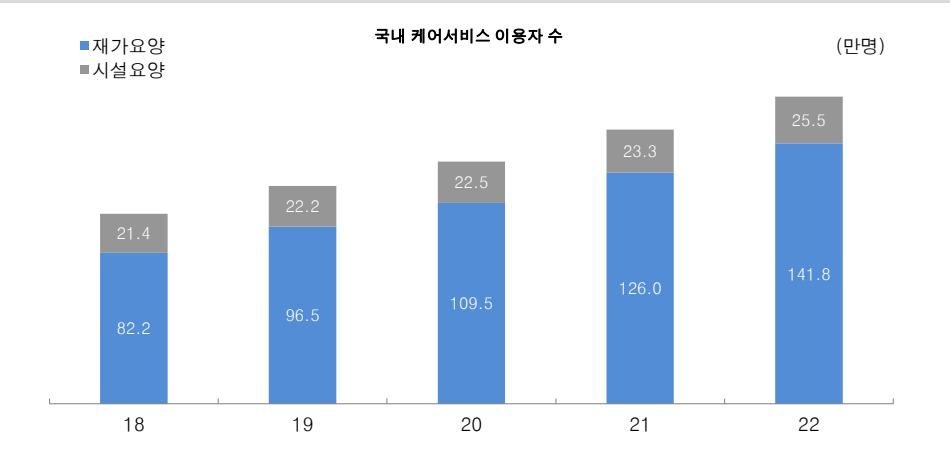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 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가요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내 시니어 돌봄케어서비스 시장규모 (5년간 연평균 15.6% 증가)



주: 재가요양 및 시설요양 부문의 비급여 항목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보건복지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국내 시니어 돌봄케어서비스 이용자 수 (5년간 연평균 12.7% 증가)



주: 재가요양 및 시설요양 부문의 비급여 항목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보건복지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시니어케어 서비스 유형

시니어케어 서비스에는 시니어에 특화된 다양한 서포트와 예방 목적의 서비스 항목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령자가 직면한 복잡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면서 가능한 질 높은 생활과 자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日 시니어케어 유형

현재 일본의 시니어케어는 예방서비스를 포함하면 40개 이상의 서비스가 존재하나 크게는 다음의 3개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1)재택형(=재가요양, 홈케어): 현재 거주중인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케어서비스를 받음
- 2)지역밀착형: 시니어가 거주해 온 익숙한 지역에서 방문/통원/시설이용 등의 케어서비스를 필요 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2006년 개호보험 개정 시 신규 도입)
- 3)시설형(=시설요양): 특별양호노인홈(Nursing Home) 등의 공적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케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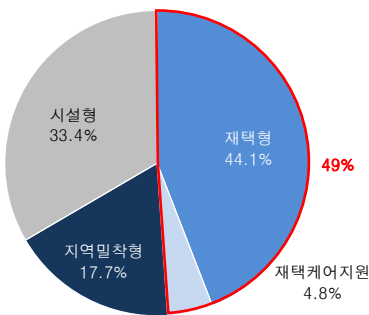
이 중 재택형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종류도 다양하고 케어난이도가 낮은 ‘요지원대상자’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 재택형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2022년 3월말 기준, 재택형서비스 49%)



자료: LIFULL senio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日 시니어케어서비스 중 절반 가까이는 재택형 관련 49%

日 개호보험급여 비중 (2022.3월말)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2. 日 시니어케어 카테고리별 세부 항목

1) 재택형 (=재가요양)	방문 케어	9.8%
	방문 목욕	0.5%
	방문 간호	3.1%
	방문 재활	0.5%
	통원 케어 (데이케어 서비스)	11.9%
	통원 재활	3.6%
	복지 용구 대여	3.3%
	단기 입소 생활 (Short Stay)	3.9%
	단기 입소 요양	0.4%
	재택 요양 관리 지도	1.4%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케어	5.6%
	재택케어지원	4.8%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이용자 자기부담금 0엔)	
2) 지역밀착형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케어간호	0.7%
	야간대응형 방문케어	0.0%
	지역밀착형 통원케어	3.8%
	치매대응형 통원케어	0.7%
	소규모다기능형 재택케어	2.6%
	간호 소규모다기능형 재택케어	0.5%
	치매대응형 공동생활 (그룹홈)	6.8%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생활케어	0.2%
	지역밀착형 케어노인복지시설서비스	2.2%
3) 시설형 (=시설요양)	개호 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18.7%
	개호 노인보건시설	12.5%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0.5%
	개호 의료원	1.7%

주: 2021년도 총 개호보험급여비내 서비스 항목별 지급 비중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I. 성장 드라이버 (Opportunity)

시니어케어 시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시니어케어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드라이버는 무엇일까?

시니어케어 성장동력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 드라이버 네(4)가지

- ✓ 고령인구 · 초고령인구 증가
- ✓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 (당뇨, 치매)
- ✓ 정부 정책 방향 (예방관리를 강조하는 재택케어로의 전환)
- ✓ 시니어의 AIP 욕구 (Aging in Place, 지역사회 거주희망)

1. 초고령인구 증가

1) 고령인구 · 초고령인구 증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향후 계속해서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만 유일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8, 9)

현재 일본은 세계 제일의 초고령국가로 2018년부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수가 전기고령자수를 상회하는 이른바 ‘시니어의 고령화’가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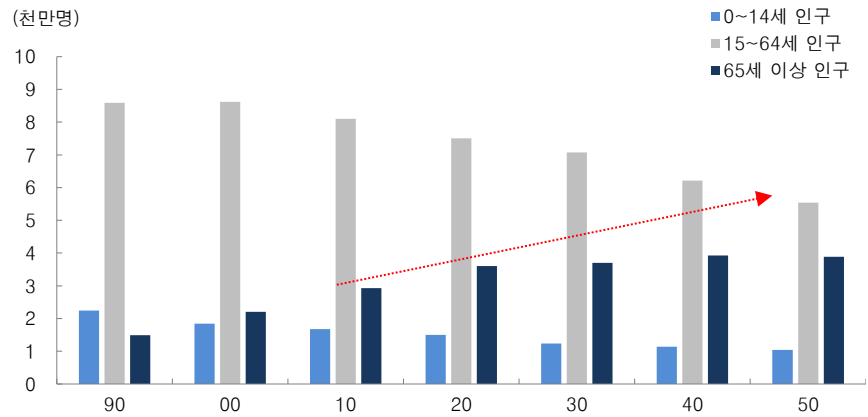
기대수명 연장으로 초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85세 이상 인구는 2040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단순히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초고령인구가 고령인구를 상회하는 기세로 늘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돌봄케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3은 일본의 시니어 연령별로 돌봄케어필요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돌봄케어필요정도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케어필요정도는 58%로 85세 이상 10명중 6명은 돌봄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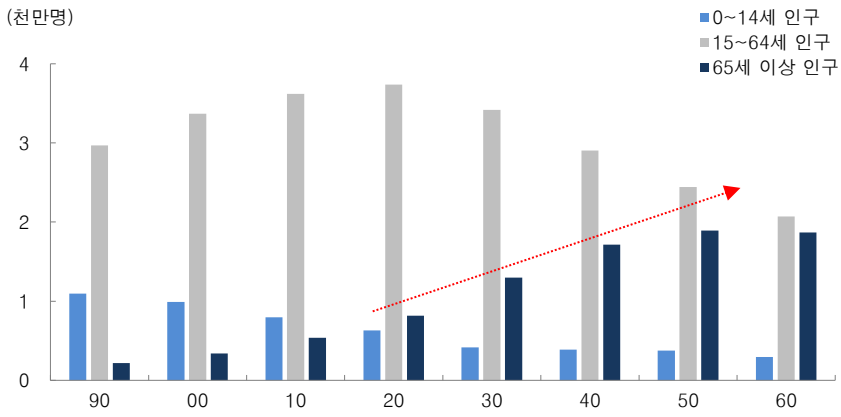
평균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초고령인구 증가로 시니어 돌봄케어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8. 日 연령별 인구 추이 - 65세 이상 인구만 유일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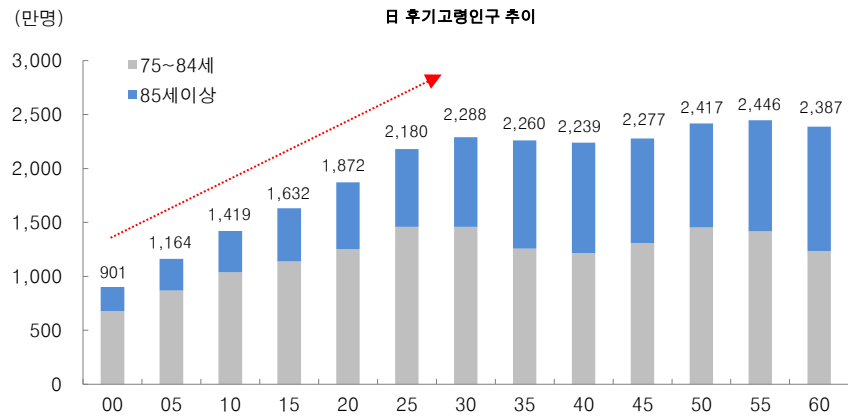
자료: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2023년 추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韓 연령별 인구 추이 - 65세 이상 인구만 유일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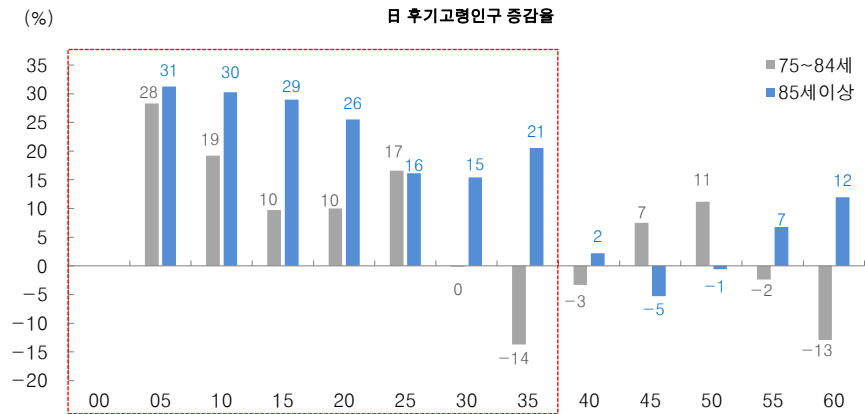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년 12월 공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日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증가는 2030년까지 증가 일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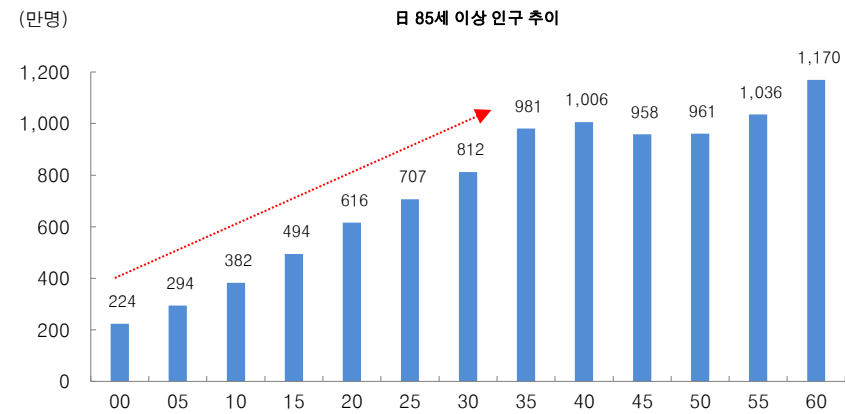
자료: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2023년 추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증가세가 75~84세 인구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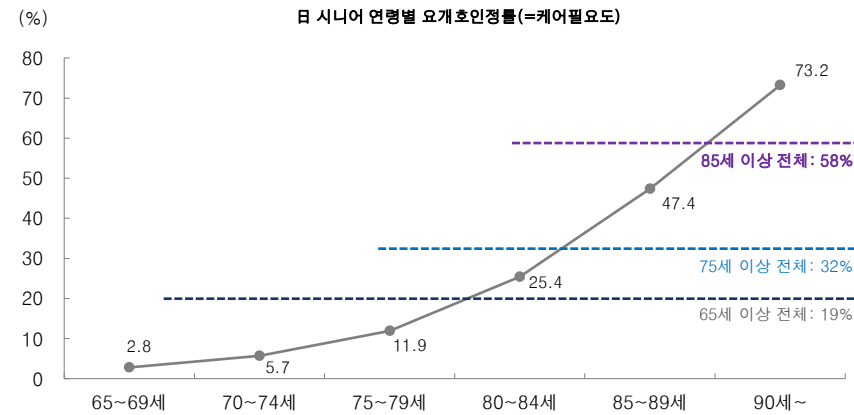
자료: 국립사회보장연구문제연구소(2023년 추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日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40년까지 증가 일변도



자료: 국립사회보장연구문제연구소(2023년 추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고연령일수록 돌봄케어 필요 정도는 커질 수 밖에 없음



자료: 후생노동성(2022.9월말 개호필요인정자수), 총무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만성질환자 증가
① 당뇨

2)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 (당뇨, 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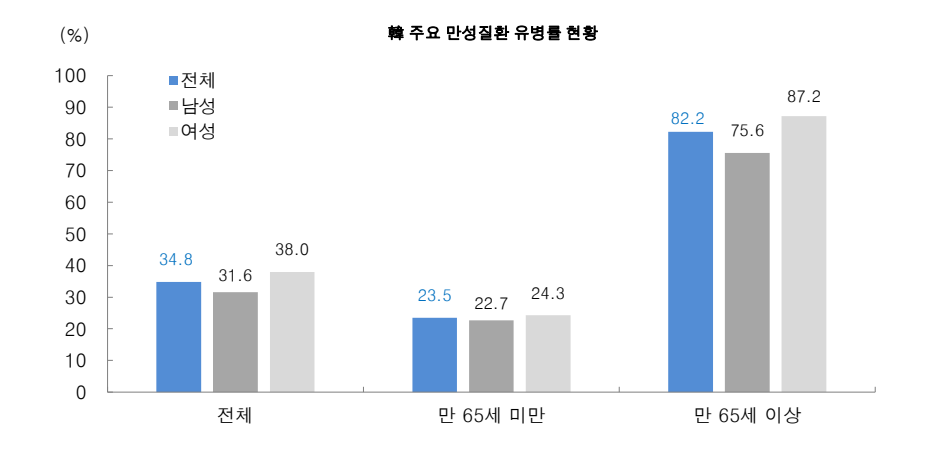
만성질환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으로 오랜 기간 발병하며 계속 재발하는 질환이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65세 미만 인구 대비 약 3.5배 높으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진 복합만성질환 유병률 또한 인구 고령화와 비례한다.

특히 21세기 급증하는 보건 문제 중 하나인 당뇨병은 만성질환의 대표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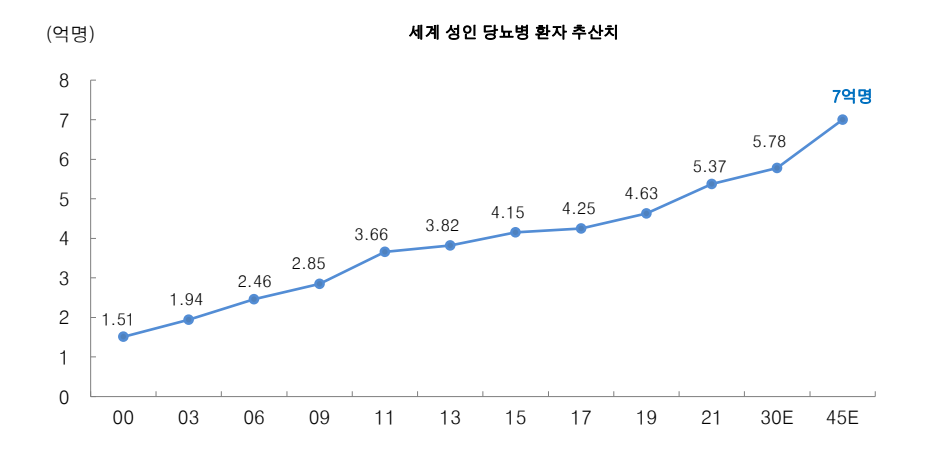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성인(20~79세) 당뇨병 환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당뇨병연맹 IDF(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는 2030년까지 성인 당뇨병 환자가 5억 7,800만명에 이를 것이며 2045년까지는 그 수가 7억 명에 달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그림 14. 65세 이상 고령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2.2%. 고연령일수록 유병률 상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5. 성인 당뇨병 환자는 20년간 3.6배 증가. 2045년에는 7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자료: IDF Diabetes Atla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② 치매(인지증)

노년기에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에 노인성 치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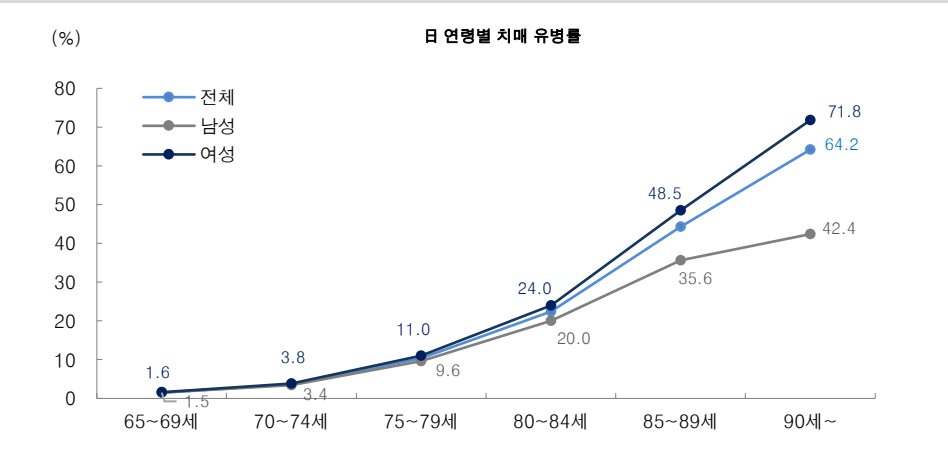
일본 후생노동성의 연령별 치매 유병률 데이터를 보면 같은 노인이라도 고연령일수록 치매 유병률도 비례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0세 이상부터는 치매 유병률이 20%를 넘어서고 9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64%로 상승폭이 확대된다.

당뇨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당뇨병이 일찍 발병할수록 치매 발병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하기 그림 17 일본의 치매 인구 장래추계 결과는 2060년까지 당뇨병 유병률이 20% 증가할거란 가정하에 실시한 것으로 본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 성별, 생활습관병(당뇨병) 유병률이 치매(인지증)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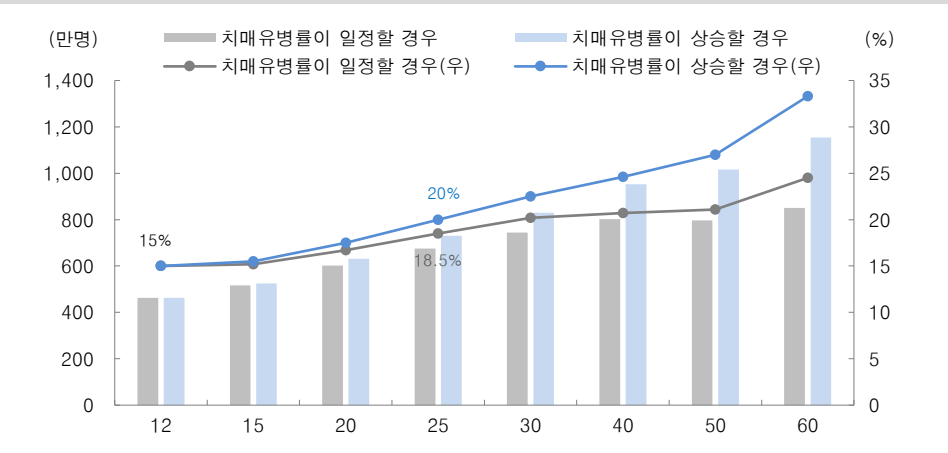
기대수명 연장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는 증가하고 만성질환 특성상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인 케어와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니어케어 시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림 16. 고연령일수록 치매유병률 상승. 특히 80세 이상 상승폭 확대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7. 日 치매 인구 장래추계 (2025년 이후 치매유병률 20%대 진입)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 정부 정책

통합케어서비스 제공
은 글로벌 트렌드

3) 정부 정책 방향 (예방관리를 강조하는 재택케어로의 전환)

시니어케어는 의료 부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헬스·케어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재택의료, 요양생활시설, 데이케어통원서비스 등의 통합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니어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가능한 오랫동안 자립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日 의료제도 개혁
(2006)

일본의 헬스·케어 정책방향성은 2006년 의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예방관리를 강조한 재택 의료·케어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2000년에 도입한 개호보험을 3년마다 개정한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은 도입 5년만에 급속히 악화된 재정을 고려해 2006년 개호보험법 개정 시, 예방개념을 도입한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제도화하여 경증자에 대한 케어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고령자 재가생활 지원)

케어시설 총량규제도 실시했는데 이는 개호급여비 억제에 위해 케어직원(요양보호사)을 케어시설 내에 배치해야 하는 개호보험시설(Nursing Home)과 개호형 유료노인홈 신규 정비량을 각 지역, 지자체별로 규제해 사실상 신규 개설을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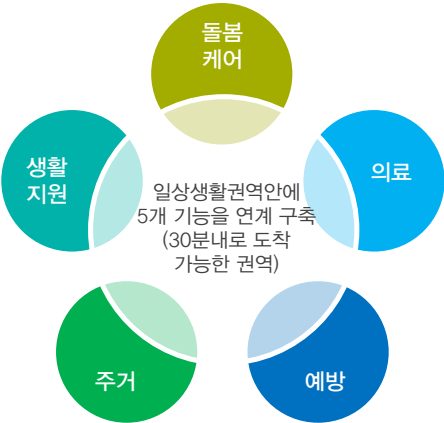
日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 (2012)

2012년에 시행된 개호보험법 개정안에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 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시니어케어의 축을 시설에서 재택케어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시설 중심의 의료·케어에서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케어 서비스를 받으며 나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18. 日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미지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日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 배경

질병이 있더라도 오랜기간 거주해 온 익숙한 생활공간(주택, 동네)에서 요양하면서 나다
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공간내에 위치한 의료와 돌봄기관이 연계하여 포괄적
이며 지속적인 재택 의료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은 의료적 치료와 케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증가하
는데 반해 이들을 수용할 체제와 시설은 부족하고, 노인돌봄은 어느 한 가정에만 해당되
는 것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기 때문에 논의는 필수적이었을거라 짐작된다.

여기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 당시 일본의 사회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짚고 넘어가자.

일본은 일찌감치 전 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1961년)과 고령자 대상 개호보험(2000년)
이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균수명을 자랑하는 초장수국가가 되었다.

촘촘한 의료와 케어인프라로 2000년대 중반까지 병원과 진료소에서 사망하는 인구는 계
속 증가해 2010년 병원/진료소 사망률은 80.3%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의 당시 자료를 보
면 일본인의 평균 병원 입원기간은 미국의 5배, 독일의 3배 길었다.

고령화 진행으로 일본의 사망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데 모순적이게도 일본의 병
원 수는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병원 수가 감소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의
원급에 해당하는 진료소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병상
(Bed)을 두지않은 무상(無床) 진료소는 증가하나 유상 진료소는 계속해서 감소중이다.

경영난에 따른 병원폐쇄와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 재택 의료케어 추진, 의료종사자(특히
의사) 부족에 따른 시설 통폐합 및 기능재편 등이 주된 감소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미 해외 복지 선진국들(영국, 스웨덴 등)도 추진한 지역사회 중심의 시니어케어 체제
를 당시 일본의 환경에 맞춰 도입된게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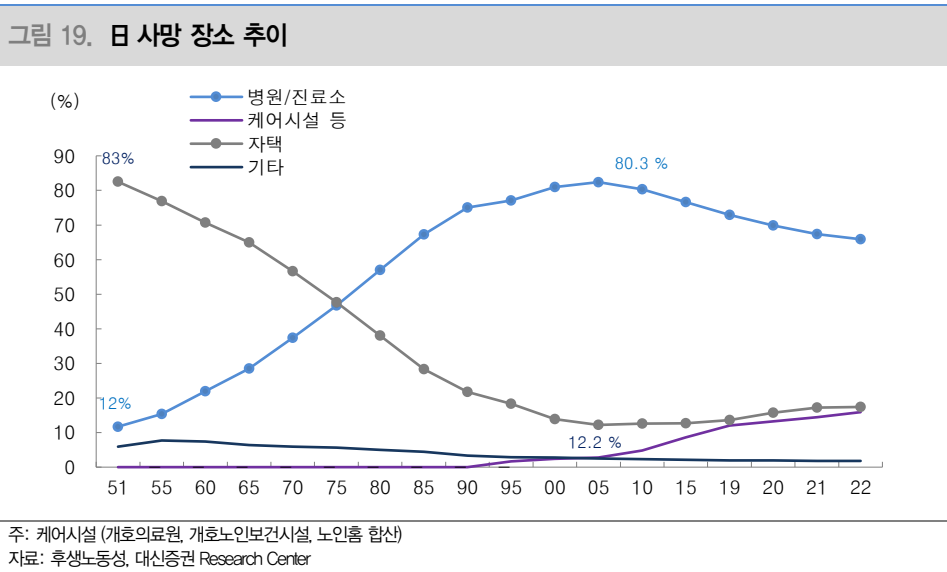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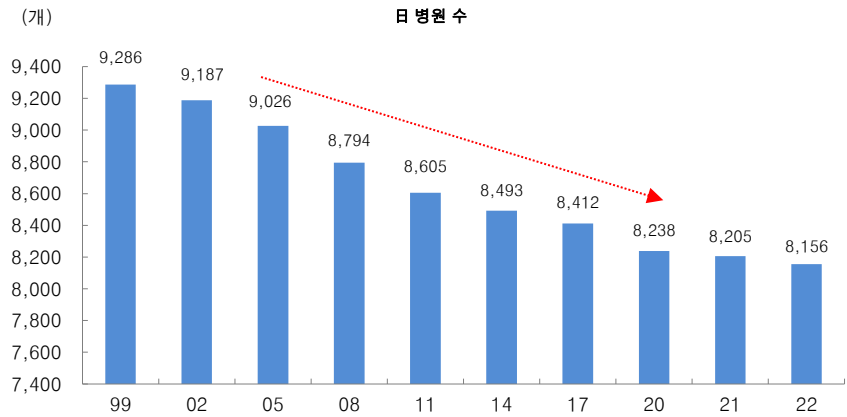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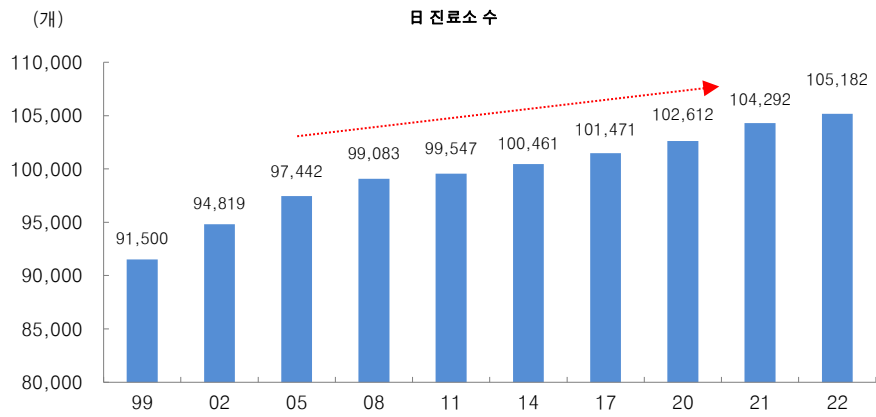


그림 20. 日 병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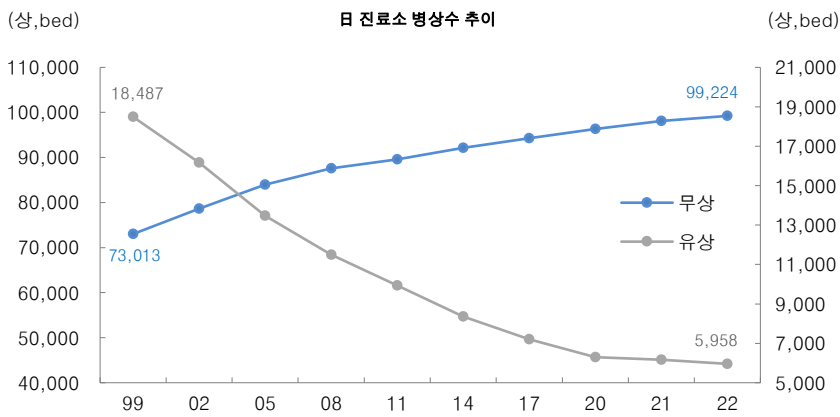
자료: 총무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1. 日 진료소 추이 (진료소는 병상수 20상 미만인 경우를 말함. 한국의 의원에 해당)



자료: 총무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2. 日 병상이 없는 무상 진료소는 증가세, 반면 유상 진료소는 감소세



자료: 총무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3. 日 재택 의료와 케어의 연계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4. 日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미지



자료: 후생노동성, 한국언론뉴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韓 地域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2018)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며(①주거, ②건강·의료, ③요양·돌봄, ④서비스 통합 제공), 20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
- 2)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지원과 서비스를 연결
- 3)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

그림 25. 韓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 (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발표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6. 韓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의 모습



자료: 보건복지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7. 韓 주요 인프라 · 서비스 확충 목표

분야	현재	미래(2022년, 2025년)
케어안심주택	일부 지역 소수	• 2022년 최대 4만호 목표
집수리사업	부분적 실시	• 2025년 최대 27만 4,000세대 목표
주민건강센터	66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8)	• 2022년 250개 시군구 목표 • 2025년 소생활권 목표 (재원대책과 연동)
어르신 지역 돌봄 시범마을	-	• 2025년 약 1,000개소
종합재가센터	-	• 2022년 시군구별 1개 (2022년 사회서비스원 직영 135개 포함)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110만 가구('18)	• 2022년까지 271만 가구 • 2025년까지 346만 가구
병원 지역연계실 (사회복지팀)	일부 병원에서 '사회사업팀' 운영	• 2022년까지 약 2,000개 병원
재활의료기관	15개소('18 시범사업)	• 2025년 약 150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노인 중 8.0%(59만명)	• 2022년 9.6% (86만명) 2025년 11%수준 이상 목표 (120만명 이상 목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 이용률 69%('17)	• 2022년까지 이용률 75% 2025년까지 이용률 80%
신규 재가서비스	-	• 식사 배달 • 이동 지원 • 법률 지원(공공 후견 등) • 안전·안부 확인 • 주택 개보수 • 야간 순회 및 대응

자료: 보건복지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Aging In Place

4) 시니어의 AIP 욕구 (Aging in Place, 지역사회 거주희망)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한국의 지역사회통합돌봄(노인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AIP (Aging in Place)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AIP(Aging in Place)는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노인들의 애착을 반영한 개념으로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적 측면, 공간적 측면, 관계적 측면을 포함한다.

- 시간적 개념: 가능한 한 오래(현실적 관점) vs. 사망 시기까지 가능하도록(최대 지향점)
- 공간적 개념: 집(초기) → 커뮤니티, 동네(최근 확대)
- 관계적 개념: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 → 노인돌봄기관과 서비스로 확장

AIP 욕구는 대부분 국가들의 공통적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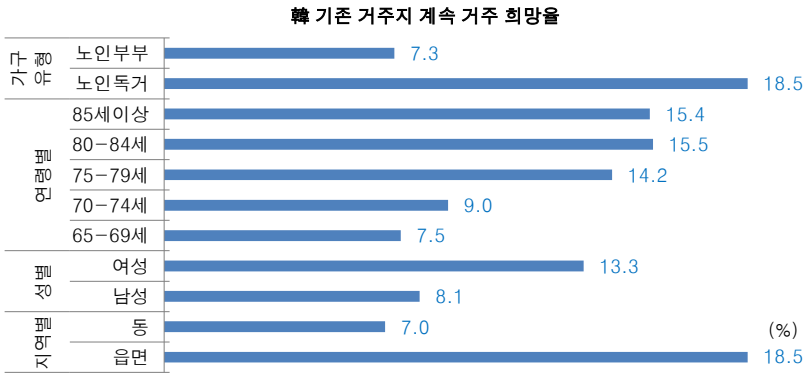
AIP에 대한 시니어들의 높은 수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노인의 삶 지표에서 확인해 본 ‘기존 거주지 계속 거주(AIP)’ 수요는 노인단독가구가 읍면지역일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1인 독거가구일수록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공익재단이 2020년에 67~81세 시니어와 67~81세 부모를 둔 35~59세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생 마지막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전국조사)에서도 자택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자 하는 비율이 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 29)

반면 67~81세 시니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임종 장소로는 자식 집과 요양케어시설을 꼽았다. (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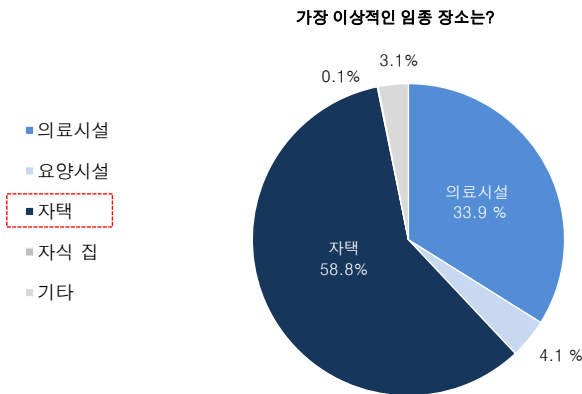
국가와 나이를 떠나 내집 같이 편안하고 정든 동네/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강한 AIP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韓 시니어 AIP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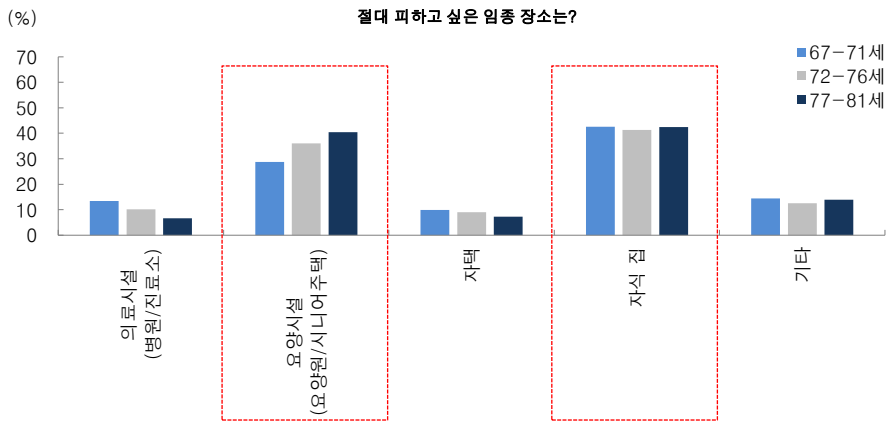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9. 日 시니어&자녀세대 대상 서베이 (가장 이상적인 임종 장소는? 자택/내집 59%)



주: 2020년 11월 27일 ~ 30일 실시한 67~81세 시니어와 67~81세 부모를 둔 35~59세 자녀 세대 대상 설문
자료: 일본재단,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0. 日 67~81세 시니어 대상 서베이 (가장 피하고 싶은 임종 장소는? 자식 집)



주: 2020년 11월 27일 ~ 30일 실시한 67~81세 시니어 대상 설문
자료: 일본재단,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시니어들의 높은 AIP 욕구와 일본 정부의 재택 의료케어 추진 정책에 따라 일본은 2010년대 들어서 병원(진료소 포함)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자택과 케어시설에서의 사망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이는 재택 의료케어 추진에 따라 방문진료가 보급되면서 자택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완만히 상승되었고, 병원이 아닌 케어시설에서 임종을 맞는 고령자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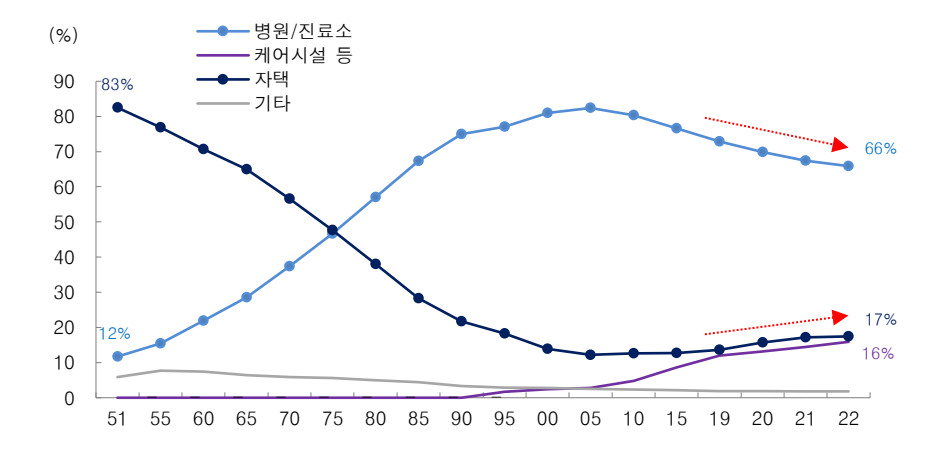
비단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과거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2)

소결

일본 정부의 시설에서 재택케어로의 대전환하에 정책적으로 추진중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한국의 노인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는 시니어들의 안락하고 정든 곳(내집, 동네,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AIP 수요를 전제로 구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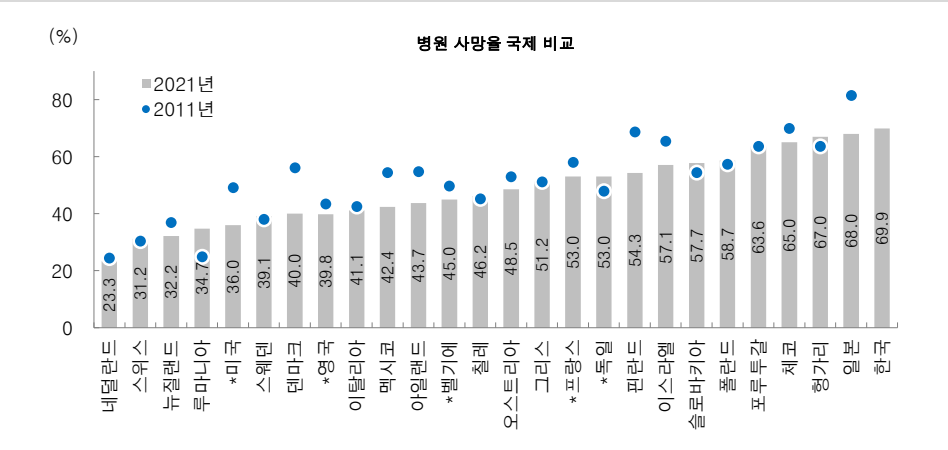
초고령인구와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 증가, 재택케어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무엇보다 남은 여생을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시니어의 AIP 욕구는 케어서비스 시장 확대에 강력한 성장 드라이버가 된다.

그림 31. 日 사망 장소 추이 (자택 & 케어시설에서의 임종 비율 증가)



주: 케어시설 (개호의료원, 개호노인보건시설, 노인홈 합산)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2. 세계적으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짐 (2011년 vs. 2021년)



주: *표시 국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치, 2021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2021년과 근접한 연도 수치 사용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3,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II. 성장 저해요인 (Threat)

시니어 돌봄케어는 구조적 성장성이 담보되는 시장이나 케어산업 특유의 애로점 또한 존재한다.

시장 성장의 저해요인

시니어케어 시장 성장의 저해요인 두(2)가지

- ✓ 비용 부담
 - 개인 케어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보험료 납부부담
 - 정부 재정부담 (보험적립금 고갈에 따른 재원부족)
- ✓ 인력 부족
 - 노동 수급 (노동인구 감소, 돌봄케어인력 고령화)
 - 노동 환경 (임금처우, 이직률)

1. 비용 부담
①서비스 이용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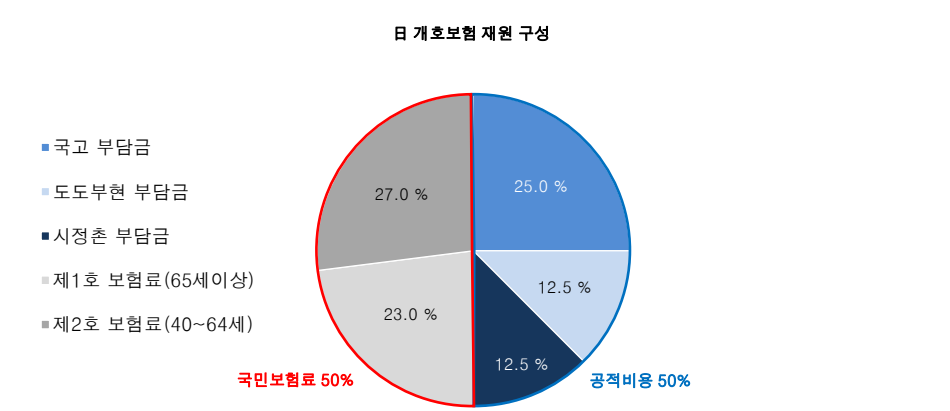
1) 비용 부담

케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은 케어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일본의 개호보험 재원은 크게 40세 이상 국민이 납부한 개호보험료와 국가 재정지출이 각각 50%씩 구성되어 있다.

케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케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본인부담비율과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부담을 넘어 국가의 재정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케어서비스 이용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원칙으로 해 왔으나, 이후 몇 번의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현재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는 20%에서 최대 30%까지 부담하도록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다.

그림 33. 日 개호보험은 개인납부보험료와 세금으로 재원 마련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의 고령자 연령별로 연평균 케어서비스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고연령자일수록 지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전기고령자(65~74세)는 연평균 5만엔,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65만엔,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는 연평균 107만엔을 케어서비스를 받는데 지출한다. (그림 34)

초고령인구의 증가는 케어서비스 시장의 성장 팩터인 동시에 고령가구의 가계 비용부담을 심화시켜 시장 성장의 저해요인이 된다.

1. 비용 부담
②보험료 부담

납부하는 보험료 또한 부담이다.

케어서비스 이용자 증가는 보험 재정을 압박한다. 재정 압박이 심화될수록 보험계약자(보험료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일본은 3년마다 개호보수를 개정하는데 개정시마다 보험료율은 인상되고 있다. 개호보수는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돌봄케어 사업장에 서비스 대가로 개호보험에서 납부되는 비용(공정가격)을 말한다. (그림 35)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2000년 당시 전국평균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한명당 납부하는 개호보험료는 2,911엔이었다. 이후 3년마다 지속적으로 보험료는 인상되어 2024년에는 6,225엔으로 개정 확정되었다.

2000년 당시와 비교해보면 현재 보험료는 2배 이상 올랐으며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그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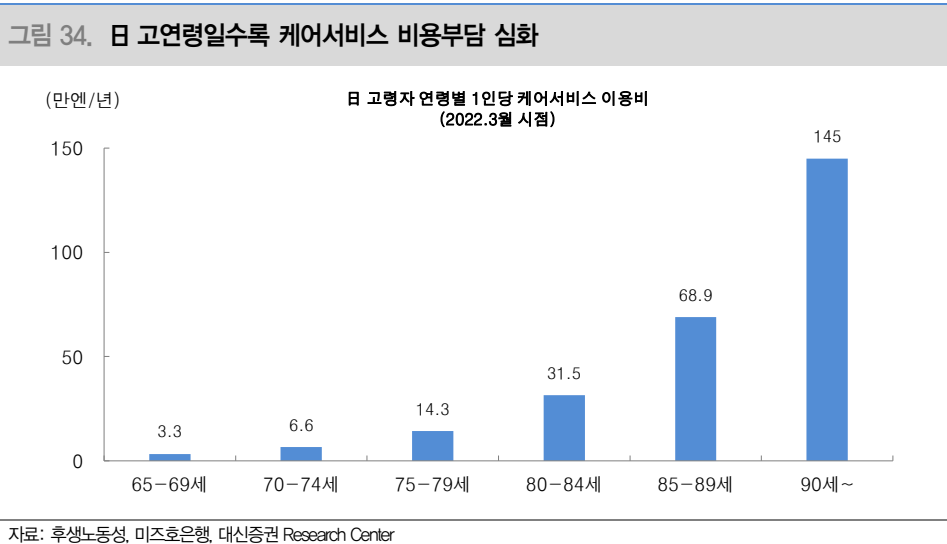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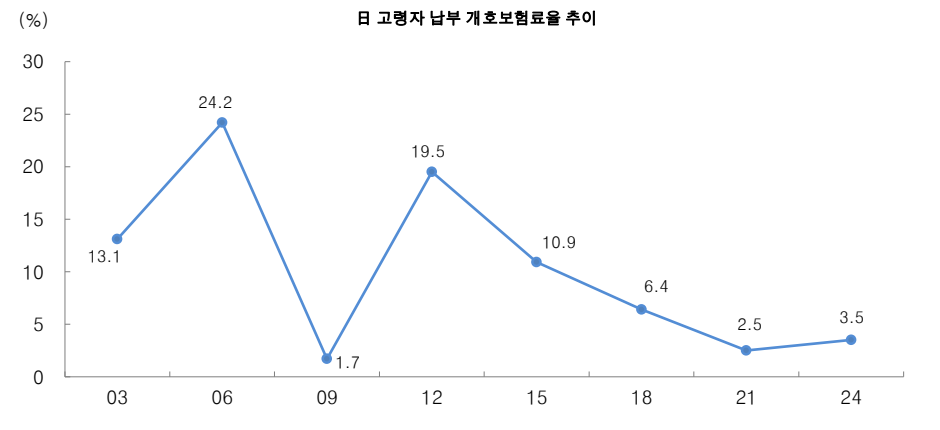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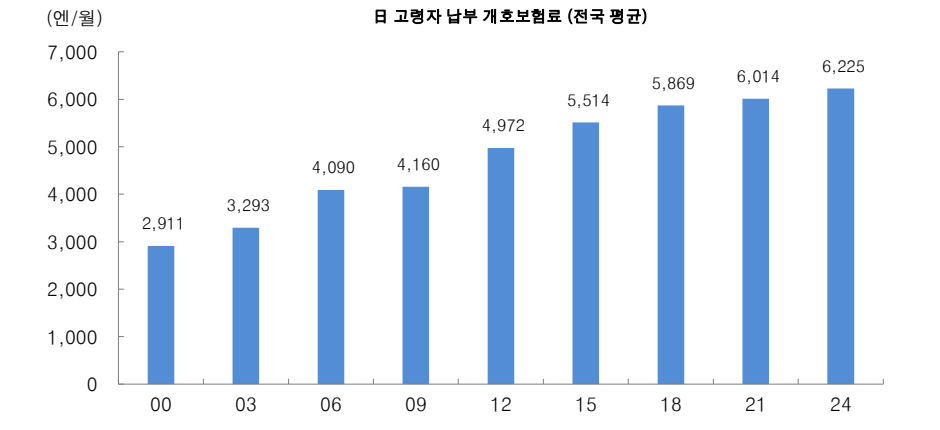


그림 35. 日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인상폭에 차이는 있으나 3년마다 개호보험료를 지속 상승



주: 65세 이상 인구(제1호 보험료)가 납부하는 전국 평균 월 개호보험료율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6. 日 지속적인 개호보험료를 상승에 따라 보험비 납부 부담 가중



주: 65세 이상 인구(제1호 보험료)가 납부하는 월 개호보험료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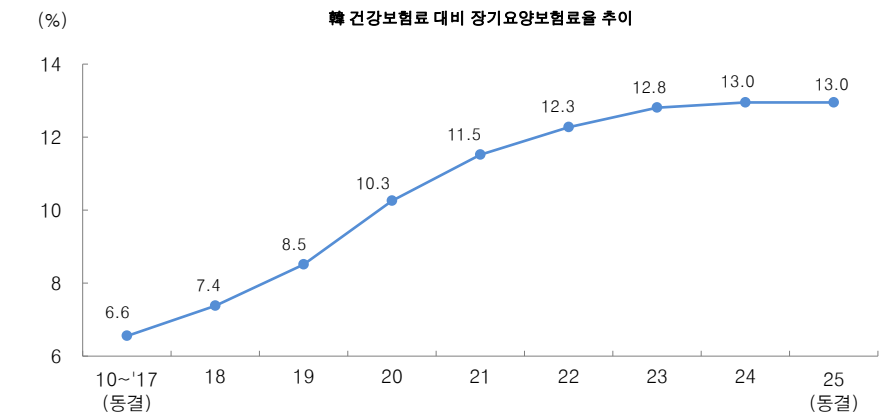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내의 경우 비용 부담은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의 국민 부담이 동결 이하다.

올해 보험료율은 동결되지만 2017년 이후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상승해 왔으며 2020년 이후로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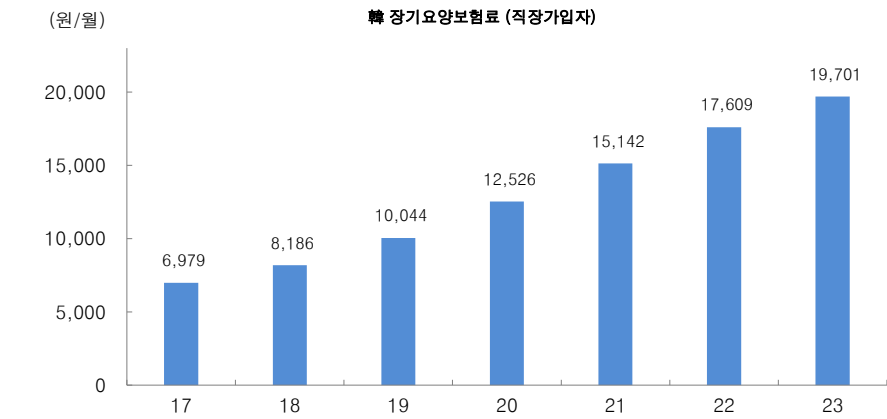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보험계약자(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매년 커지고 있다.

그림 37. 韓 2017년 이후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속 상승 &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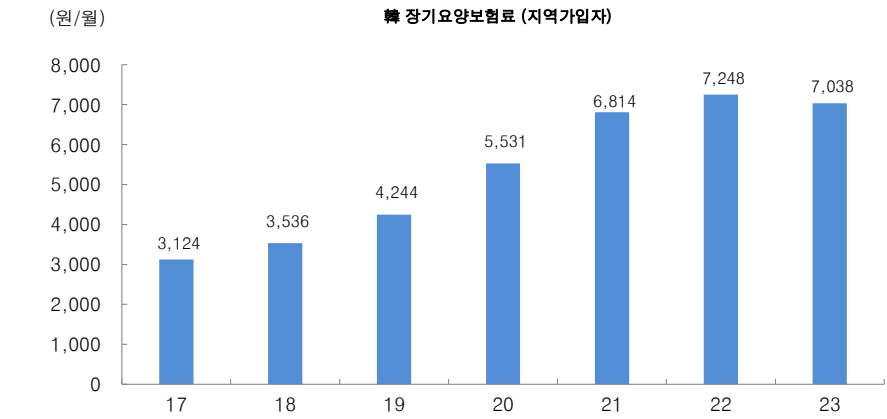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내언론기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8. 韓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9. 韓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 비용 부담
③정부 재정 부담

日 사회보장비 규모

케어서비스 본인부담비율과 보험료율의 지속적 상승은 국민 부담을 넘어 국가 재정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일본의 사회보장비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시니어케어 부문의 증가폭이 뚜렷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000-2023년 의료비는 60%, 연금은 50% 증가한 반면, 케어 항목은 4배로 급증했다. (2000년 3.3조엔 → 2023년 13.5조엔) (그림 40)

2023년 기준, 전체 사회보장비에서 시니어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연금(45%), 의료비(31%) 대비 크진 않지만 증가폭은 과거 20여년 동안 가장 가파르다. (그림 41)

일본 정부는 2040년에는 시니어케어 비용이 25.8조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앞서 그림 34에서 확인했듯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케어서비스 이용비는 증가하는데 올해부터 일본의 단카이세대가 전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로 진입하고, 2035년에는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로 들어서면서 케어비용이 급증할 것을 반영한 수치다.

韓 사회보장비 규모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65조 9,969억원으로 2021년 대비 +9.2%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건강보험료(약 76.8조원, 46.2%), 국민연금(55.9조원, 33.7%), 고용보험(15.7조원, 9.5%), 장기요양보험(9.3조원, 5.6%) 순으로 의료·케어 항목이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그림 42)

2022년 기준, 전체 사회보장료에서 장기요양보험 비중은 5.6%로 일본보다 낮으나, 지난 20여년간 일본의 케어 지출비용이 급증한 것을 보면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국내 또한 향후 10년간 국민 부담은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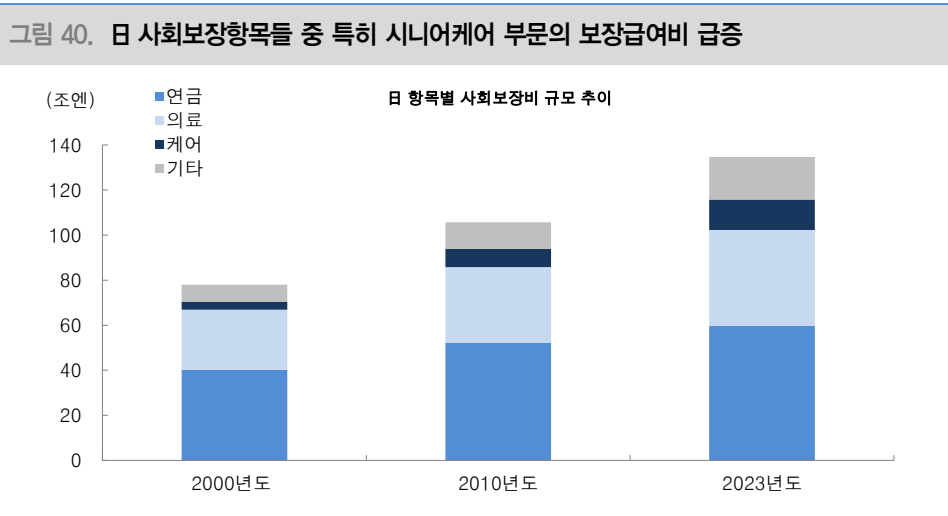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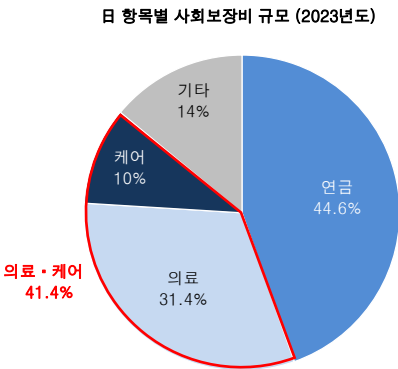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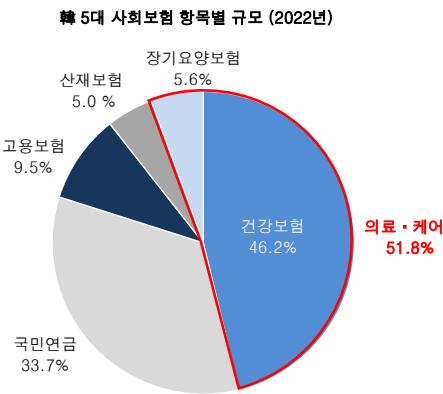


그림 41. 日 사회보장비 항목에서 의료·케어 비중은 41.4% (의료 31.4%, 케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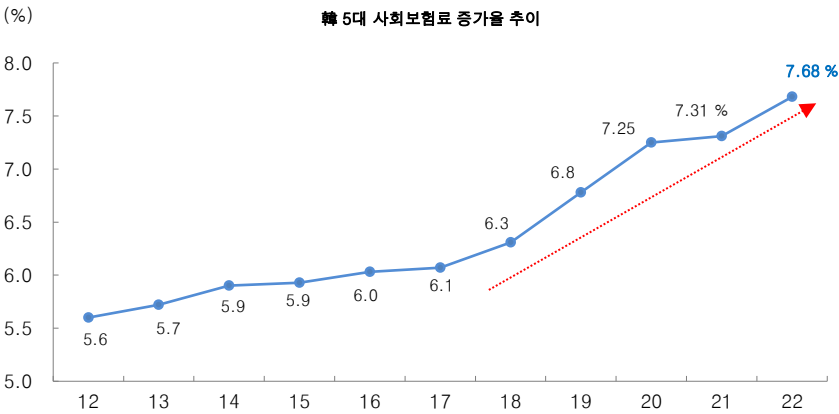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니혼게이자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2. 韓 명목 GDP 대비 의료·케어 비중은 51.8% (의료 46.2%, 케어 5.6%)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3. 韓 국민이 부담하는 5대 사회보험료 2017년 이후 증가폭 확대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가별 사회보험 부담 증가율 비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비중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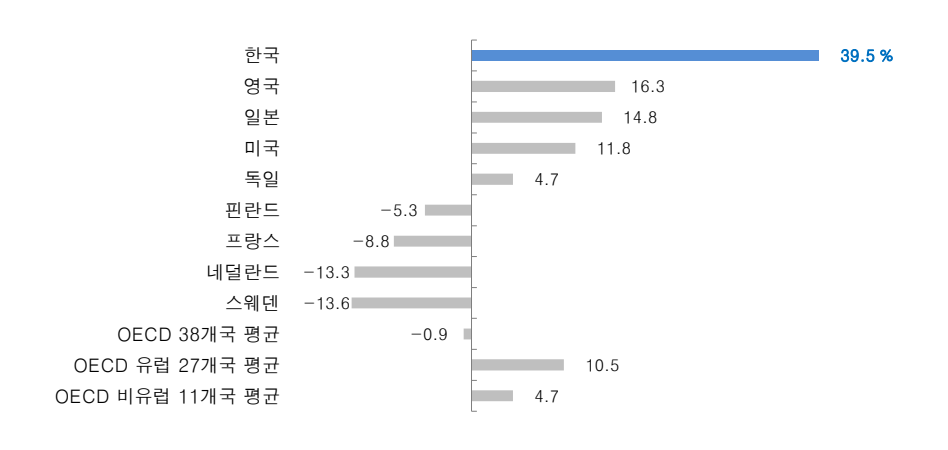
2012-2022년 한국의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39.5%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14.8%)보다도 높았고, OECD 평균 증가율이 감소(-0.9%)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였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이 OECD 주요국중에서도 큰 편으로 이에 따른 국민부담과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韓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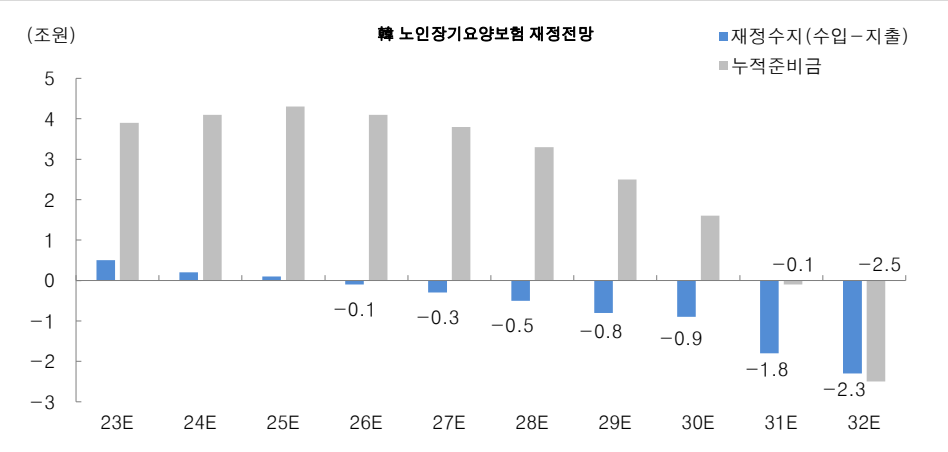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재정지출 증가속도(연평균 10.1%)가 수입 증가속도(연평균 8.9%)보다 빨라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그림 44. OECD 주요국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증가율 (2012-2022)



자료: OECD, 한국경제자유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5. 韓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23-20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인력 부족
①노동 수급

2) 인력 부족

노동수급의 불균형은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업계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인 인력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뉴노멀이 되었다.

이 중 시니어 돌봄케어는 노동력 수급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업계 중 하나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돌봄케어 수요 속도를 노동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日 시니어케어 업계는
만성적 일손 부족

유효구인배율이란 구직자 1명당 몇건의 구인(채용)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배보다 수치가 크면 구직자 대비 구인수가 많은 것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일본의 시니어케어 유효구인배율은 산업전체 평균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어 만성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산업군에 속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9년 대비 2025년에는 +32만명, 2040년에는 +69만명이 추가적으로 시니어케어 업계에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47)

현직에서 근무하는 돌봄케어 인력의 고령화 또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일조하고 있다.

한국도 돌봄공백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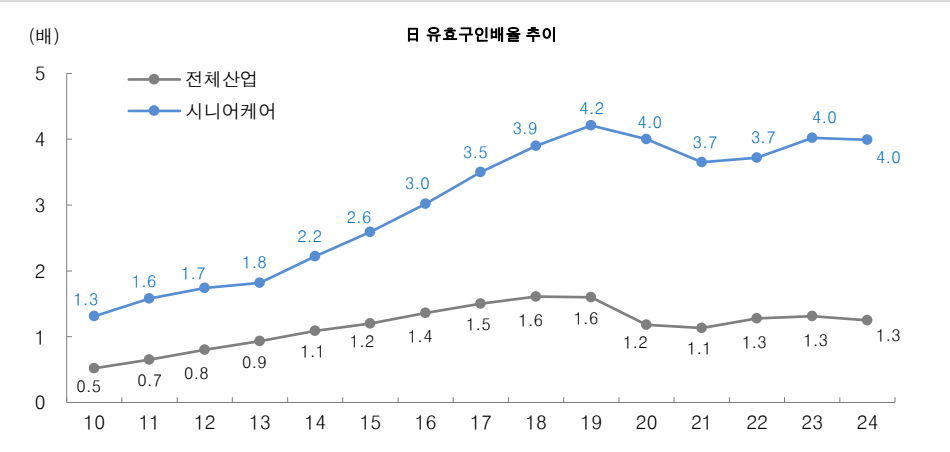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도 돌봄케어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돌봄케어 서비스 수요 대비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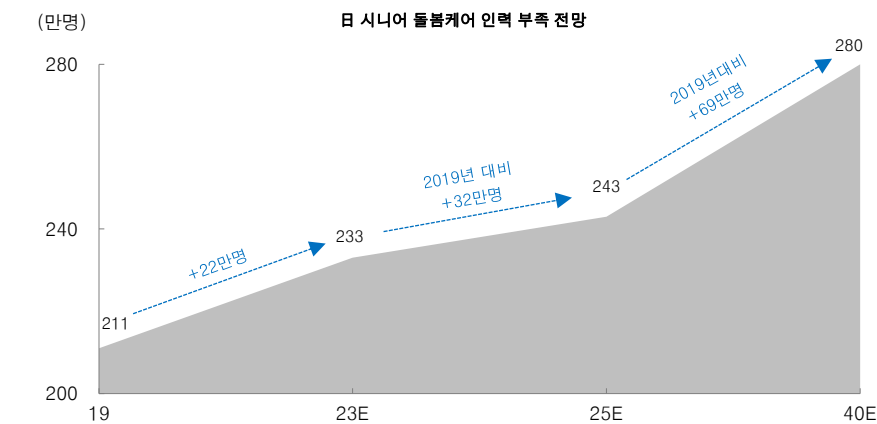
가족의 케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이 줄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도 크다. 2022년 기준 가족돌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1~19조원이 발생했는데 2042년에는 45~77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49)

그림 46. 日 시니어케어 업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노동수급 불균형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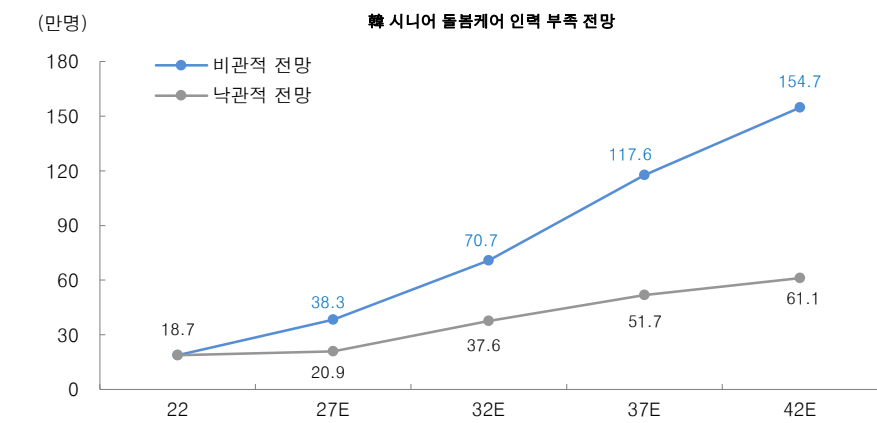
주: 유효구인배율 (구직자 1명 당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수, 유효구직자수 ÷ 유효구인수). 2024년은 1~9월 평균치
자료: 후생노동성, 미즈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7. 日 2040년에는 약 69만명의 돌봄케어 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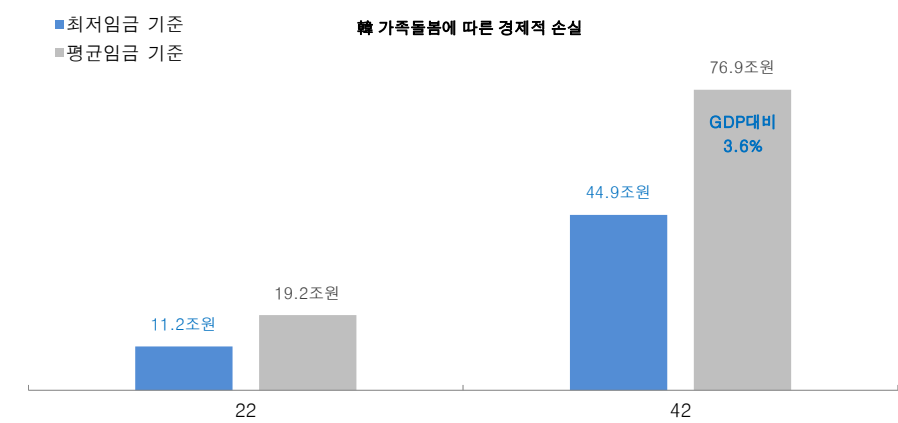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미즈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8. 韓 2042년에는 61만~155만명의 돌봄케어 인력 필요



자료: 한국은행, 국내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9. 韓 2042년 가족돌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 GDP의 3.6%



자료: 한국은행, 국내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인력 부족
②노동 환경

日 케어업계 노동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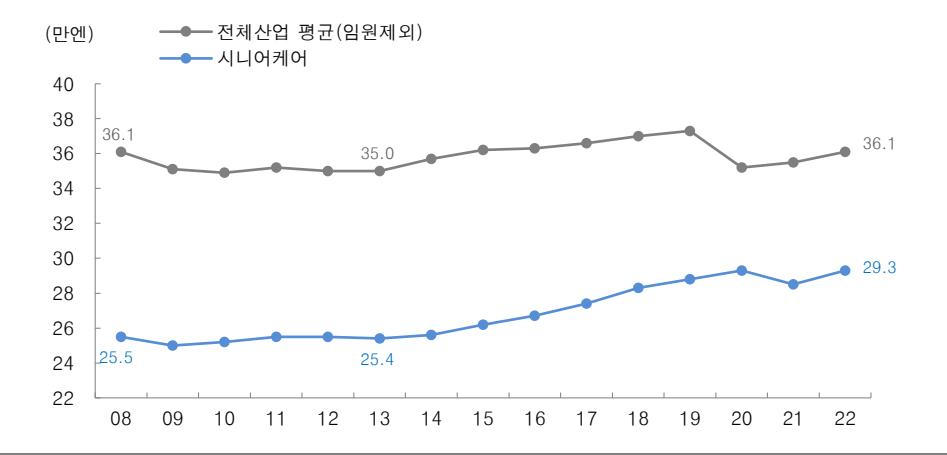
시니어케어 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돌봄케어 인력부족을 야기하며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의 돌봄케어업계 평균 임금은 산업전체 평균대비 낮고, 인력 이직률은 전반적으로 전체산업 평균대비 높은 편이다.

돌봄케어 업계의 낮은 임금처우는 결국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인력부족 사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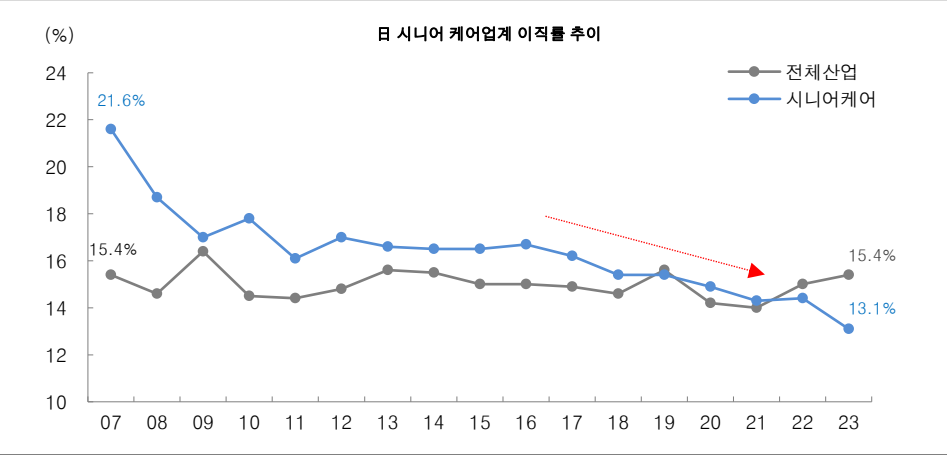
다만 2016년 이후로 이직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2년간은 전체평균 이직률과 역전된 결과를 보인다. 임금 또한 산업전체 평균과의 격차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 케어업계의 노동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0. 日 돌봄케어업계 월평균 급여 추이 (상여 포함)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1. 日 돌봄케어업계 인력 이직률은 산업전체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



주: 이직률 (1년간 이직자수 ÷ 노동자수)
자료: 후생노동성, 개호노동안정센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소결

시니어케어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크게 高비용과 인력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시니어 케어서비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외부와의 엄격한 차단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재택케어나 원격케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력 부족, 공급망 단절로 돌봄케어사업자와 시니어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시켰다.

경제적 부담은 민간 케어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수요 감소는 노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일관된 양질의 케어서비스는 숙련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케어업계의 잦은 이직(높은 이직율)은 케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시니어의 만족도 저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빈도 증가로 비용부담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시니어 케어서비스 시장 성장의 제약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AI, 로봇 등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Part 2. 日 정부 · 기업 동향

I. 정부 정책 방향

앞서 우리는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요인(Opportunity)과 저해요인(Threat)에 대해 확인했다.

시니어케어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저해하는 비용과 인력난 문제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본은 시니어 돌봄케어의 재원이 되는 개호보험법이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났다.

개호보험(2000) 도입 이후 일본의 시니어케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85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2040년까지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재정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 비용부담 대응①
: 본인부담금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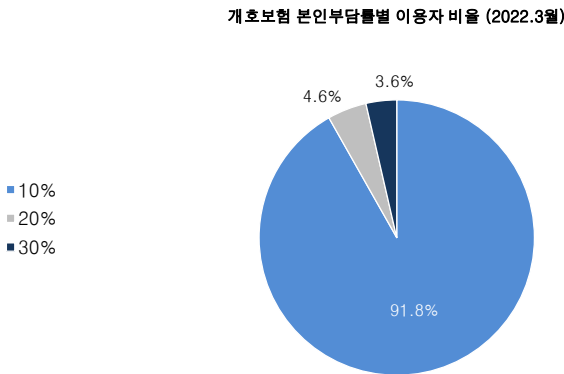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개호보험료를 더 받고, 소비세 증세 등 세수 확보를 통해 개호보험 재원고갈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고령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케어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의 10%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령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일률적으로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온 일본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20%로 인상했으며, 2018년 8월부터는 현역세대만큼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했다.

그림 52. 일본 고령인구의 92%는 케어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비율 10% 적용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개호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상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본인부담률 20%에 해당하는 고령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2024년 개정시에도 이어졌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고려해 차회(3년후) 아젠다로 이연되었다.

정부 비용부담 대응②
: 서비스 선별적 지원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비용은 늘었으나 케어서비스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 정확히는 케어난이도가 낮은 경증자를 위한 서비스 항목이 줄고, 케어난이도가 높은 중증자를 위한 케어서비스는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정된 개호보험 재원안에서 돌봄케어가 더욱 필요한 중증 고령자에게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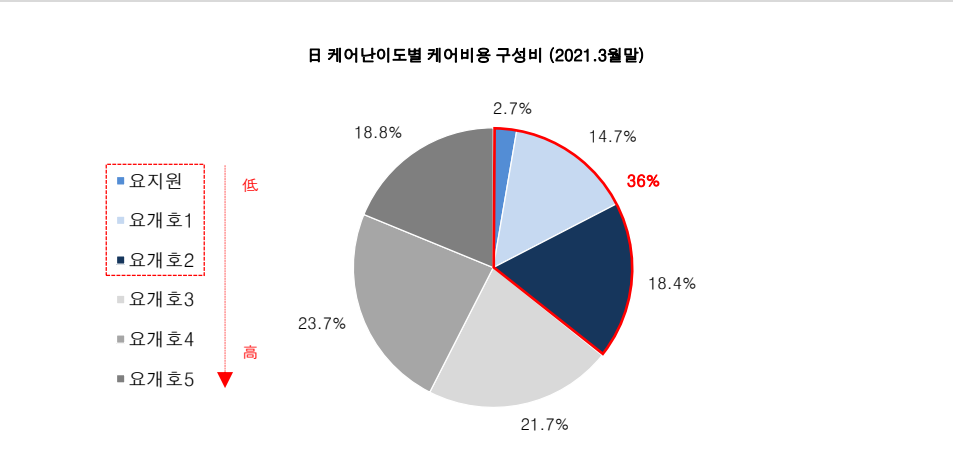
경증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호보험 적용을 받는 요개호인정자 중, 요개호도 1~2의 비교적 가벼운 상태의 시니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요개호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개호도 1~2에 해당하는 경증자는 일상생활에서 다소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립된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요개호도 3 이상은 일상생활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타인 도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케어난이도가 높은편이다.

정책 방향성

일본 정부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늘어나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 개호보험제도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와 세수는 더 늘리고, 지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지원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예방케어]에 방점을 두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기 위해 시니어가 요개호 상태가 되기 전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문·통원 케어(테이케어) 서비스를 2015년부터는 지역종합사업으로 이관시키고, 케어난이도가 높은 중증자는 의료와 연계한 통합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선별적 지원을 추진한다.

그림 53. 日 케어난이도(요양등급)별 케어 비용 구성



주: 일본의 케어난이도는 돌봄케어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요지원~요개호 5등급까지 나뉘. 숫자가 커질수록 케어난이도는 높아짐
자료: 후생노동성, 미즈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돌봄인력 부족 해결은
양적+질적 접근 필요

시니어케어 업계는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고령인구, 초고령인구) 대비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 만성적인 인력부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공급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은 궁극적으로 돌봄케어 현장에 노동력 공급 증가로 이어져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다만 질적 개선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정부 인력난 대응①
: 해외 인력 도입

1) 노동력 양적 공급 - 해외인력 활용

일본 정부는 노동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돌봄케어 현장에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돌봄케어 업계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총 4개가 있다. (하기 표 참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각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돌봄케어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3. 日 개호 분야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 비교

	EPA (2008년 ~)	재류자격 [개호] 비자 (2017년 9월 ~)	기능실습제도 [개호직종] (2017년 11월 ~)	특정기능제도 [개호분야] (2019년 4월 ~)
제도 취지	협정국과의 경제 연계 강화	전문, 기술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	상대국에 대한 기술 이전	특정 산업 분야에 전문성·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수용
근로 기간	4년 (개호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 영구적)	5년 (무제한 갱신 가능하나 입국 시에는 [유학] 비자)	3년 (소정의 조건 충족 시 최장 5년)	5년 (재류기간 갱신 가능)
수용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제한없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1개국	일본과 송출국간 MOC(협력각서) 체결한 국가
고용 계약	일본인과 동일한 고용 계약 원칙			
가족 거주	국가자격증 취득 후 가능	가능	불가	(요건 충족 시) 가능
과제 사항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진입장벽 有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진입장벽 有	-	-
수용 실적	3,213명 (자격증 취득자는 1,069명)	8,093명 (2023년 6월말)	15,909명 (2023년 12월말)	28,400명 (2023년 12월말)

주: 개호복지사는 한국의 요양보호사, EPA 수용 실적은 2023년 6월 시점

자료: 후생노동성, 출입국재류관리청, SMB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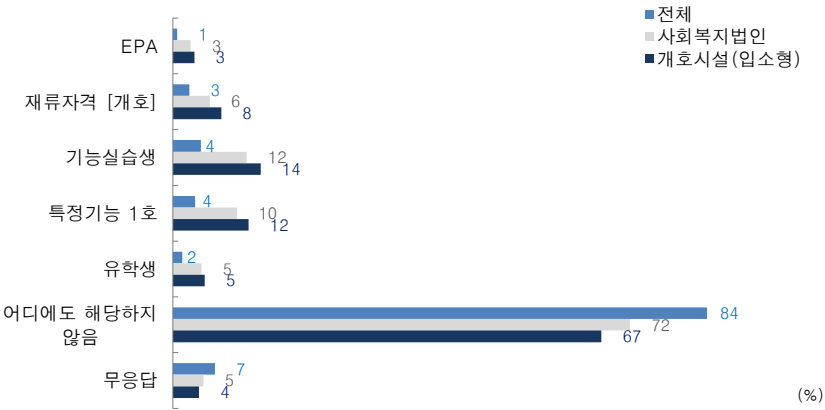
日 해외인력 고용현황

日 돌봄케어 업계 해외인력 고용 현황

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가 발표한 외국인 인력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사회복지법인과 개호시설(입소형)에서는 각각 10% 정도 되는 외국인 인력을 고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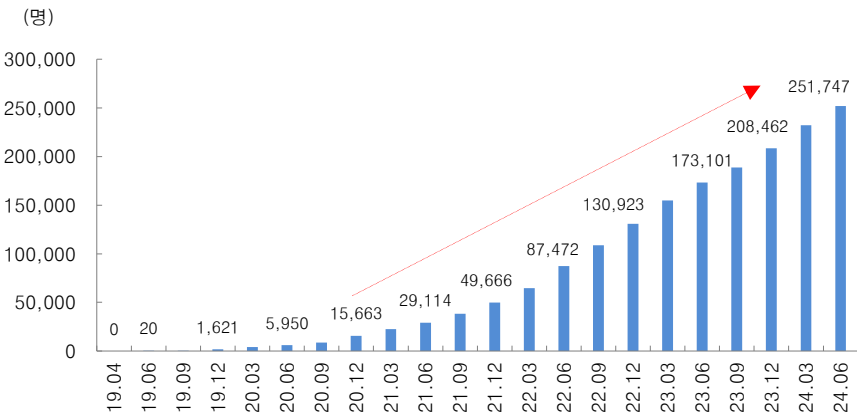
돌봄케어 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기능실습제도(4.4%)와 특정기능제도(3.5%)를 통해 재류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많았다.

그림 54. 日 돌봄케어 업계 외국인 고용 현황 (2023년 3월말)



자료: 개호노동안정센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5. 日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 추이



주: 특정기능 1호 및 특정기능 2호의 허가를 받아 재류하는 외국인 수 전체 (속보치 기준)
자료: 출입국재류관리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부 인력난 대응②
: 노동환경 질적 개선

2)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 - ① 업무방식 개혁 관련법 제정 (2018년)

2018년 일본 정부는 일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방식 개혁 관련법]을 제정했다.

일찌감치 시작된 생산연령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노동력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동 법은 기존의 복수 노동관련법들을 개정한 것으로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업무방식 개혁 관련법

[업무방식 개혁 관련법] 주요 내용

- ✓시간외노동 상한 규제: 시간외노동을 원칙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규제하며, 위반 시 벌칙
- ✓연차유급휴가 취득 의무화: 연간 1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근로자에 대해 연간 5일의 유급휴가 취득 의무화
-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 확보(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 금지

업무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행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시니어케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업무 특성상 야근과 교대제 근무가 많아 노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돌봄케어 업계는 동 법 시행으로 노동시간을 적정화하고, 단축근무·원격근무 등의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돌봄케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제한된 인력안에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해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돌봄케어 사업장(시설)에서는 인력 확보와 정착을 위해 1)근무 시프트 제고, 2)ICT, 케어로봇 도입, 3)유연한 업무방식 도입, 4)직원 교육연수, 5)임금처우개선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는 민간의 재량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처우개선 가산제도

개호보험에서 돌봄케어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장(시설)에 지불되는 개호보수(급여)에는 기본보수에 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가산(+)해 지불하는 가산제도가 있다.

이 중 하나가 처우개선가산제도인데,

처우개선가산제도는 돌봄케어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정비하여 돌봄케어 업계 전반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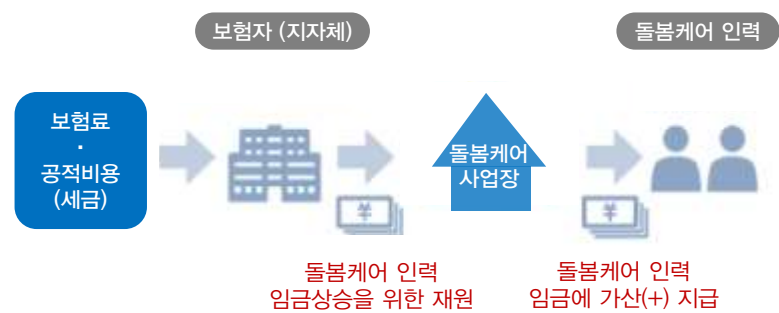
돌봄케어 근로자의 급여 인상과 직장내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정착률 향상(장기근속)이 주된 목적이다.

돌봄케어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원 급여에 최대 월 37,000엔 상당 금액이 가산된다. (사업자는 ①기본급인상, ②상여인상, ③특별수당의 형태로 지급 가능)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돌봄케어시설의 약 94.5%가 처우개선가산을 받고 있으며(등록기준), 이 중 80.5%가 실제 가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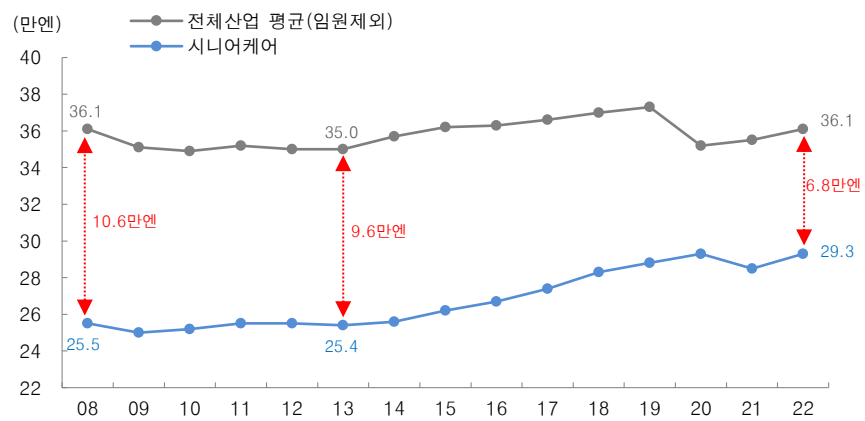
처우개선가산제도 도입으로 돌봄케어업계 임금 수준은 산업전체 평균과의 격차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림 56. 日 정부의 돌봄케어 인력 임금상승 지원 구조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7. 日 시니어케어 업계 종사자 월 급여 추이 (전체산업과의 격차 축소 경향)



주: 상여금 포함 급여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부 인력난 대응②
: 노동환경 질적 개선

2)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 - ② AI・ICT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LIFE도입 2021년)

일본 정부는 AI, ICT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기술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돌봄케어업계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돌봄케어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 통합 관리하면 휴먼에러를 줄이고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호DX’ (Digital Transformation, DX)라 칭하며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돌봄케어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LIFE (2021년 4월~)

LIFE(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for Evidence)는 후생노동성이 추진하는 과학적 시니어 돌봄케어 실현을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2021년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시니어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돌봄케어 계획 등을 표준화된 양식에 입력하면 후생노동성에 데이터가 보내지고 입력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결과를 해당 돌봄케어사업장(시설)은 피드백 받을 수 있다.

LIFE 도입 배경

LIFE(과학적 돌봄케어 정보시스템)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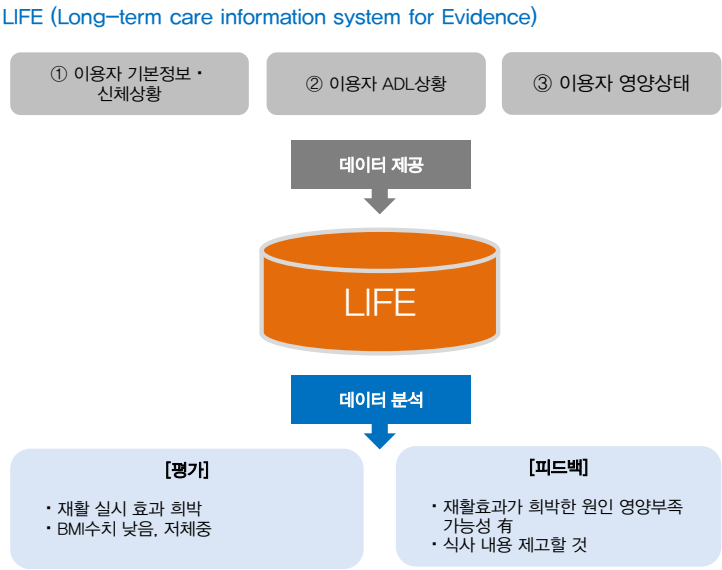
- ✓**돌봄케어 수요 다양화**: 고령화 진전으로 돌봄케어에 대한 시니어의 니즈도 다양해짐
 - ✓**데이터기반 돌봄케어 중요성**: 현장에서의 경험치와 감(勘)에 의존한 돌봄케어가 아닌 과학적 근거(Evidence)에 기반한 케어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짐
- LIFE는 돌봄케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돌봄케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돌봄케어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적극 활용되면 보다 질 높은 케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시니어 이용자의 만족도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돌봄케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 분야와 같은 유사업종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과학적개호추진
가산제도
(2021년 4월~)

후생노동성에서 적극 추진중인 LIFE는 돌봄케어사업자에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LIFE를 이용해 데이터를 제출하고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받은 피드백 사항을 실무에 활용함으로써 개호보수급여에 가산(+)해 받을 수 있는 가산제도(정식명칭: 과학적 개호추진 가산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돌봄케어시설에서의 LIFE 활용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시점, LIFE 등록 사업소 약 6만개)

그림 58. 돌봄케어 현황을 온라인상에 기록하는 日 공공 전산 등록 시스템 “LIFE”



주: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수행능력)
자료: 후생노동성, Googl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9. “LIFE” 피드백 현황 이미지



자료: Googl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I. 기업 사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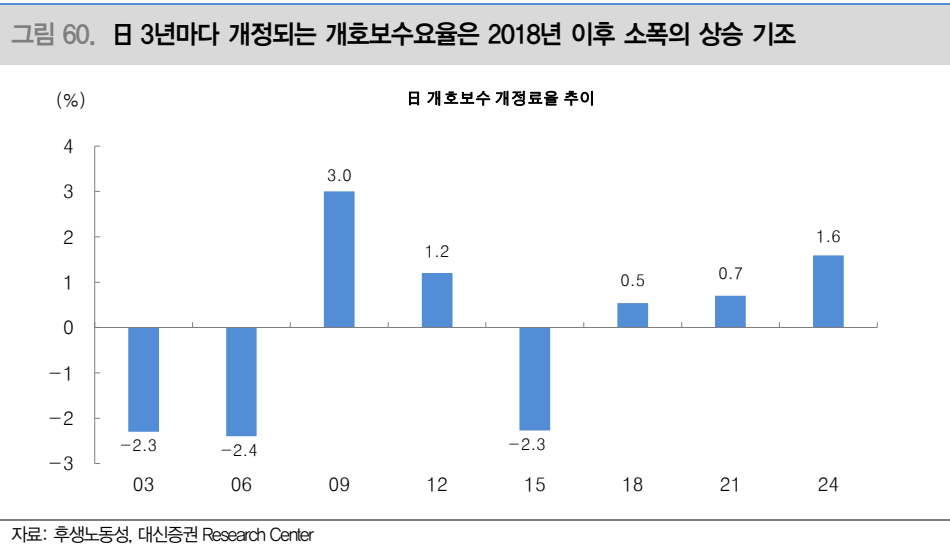
초고령사회에 시니어 돌봄케어는 사회적 수요가 높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분야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익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그 어느때보다 경영 효율화 및 질 높은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과 시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민첩함이 필요하다.

日 시니어케어 업계
수익환경 변천

지난 20여년간 일본의 돌봄케어업계 수익환경은 여러 요인들로 변화해 왔다.

- 1)시장 확대: 고령화 진행으로 돌봄케어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규모는 확대해 왔다.
특히 2000년에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민간기업들의 시장진입이 활발해졌고 시니어
이용자 또한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개호보수 개정: 3년마다 개정되는 개호보수요율에 따라 사업자 수익이 영향을 받는데
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돌봄케어 수요 변화로 보수체계 재편이 진행되는 추세다.
- 3)인력 부족: 돌봄케어인력 부족이 심각해 인건비 증가, 서비스 체제 유지가 기업들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인력확보 문제는 사업 경영을 좌우한다.
- 4)경쟁 심화: 시장확대에 따라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의 차별화, 효
율화 도모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와 브랜딩 파워를 내세워 사업규모를 확
대중이나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경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 5)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은 데이케어서비스(통원케어)의 이용기피,
입소시설의 가동률 저하 등을 야기하며 돌봄케어업계 수익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日 시니어케어 업계
수익환경 현재

일본 시니어 돌봄케어 업계 수익환경 현재

- 1)수익 양극화: 대형사업자는 사업 다각화와 효율화를 추진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사업자는 인력부족과 경쟁심화 영향을 크게 받으며 불안정한 수익 상황을 보인다.
- 2)개호보수 의존도: 대부분의 돌봄케어사업자는 개호보수가 주된 수익원으로서 정부의 개호보수 개정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에는 비급여 서비스와 지역 연계 서비스를 늘려 신규 수익원 창출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3)인건비 증가: 인력부족 심화로 돌봄케어 직원들의 임금은 상승추세이나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치유개선가산제도가 마련되어는 있으나 노동환경 개선을 이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호보수 상승분이 비용 증가로 상쇄)

日 시니어케어 업계
이익률 평균 2.4%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개호시설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2023년 3월말 기준) 케어서비스 전체 평균 이익률은 2.4%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으며, 이는 개호보험이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 중 특별양호노인홈과 개호노인보건시설과 같이 공공(지자체, 의료·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형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대비 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설형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수도광열비 등의 물가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日 개호서비스 이익률

서비스 유형	2022년도	2021년도	증감(%p)
서비스 전체 평균	2.4%	2.8%	-0.4
특별양호노인홈	-1.0%	1.2%	-2.2
개호노인보건시설	-1.1%	1.5%	-2.6
방문케어	7.8%	5.8%	+2.0
통원케어 (데이케어)	1.5%	0.7%	+0.8
단기 입소 생활 (Short Stay)	2.6%	3.2%	-0.6

참고: 2021년도 제조업, 소매업 등의 주요산업 평균 이익률 4.3% (출처: 경제산업성, 기업활동기본조사)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시니어케어 업계 특징
①소규모 사업자 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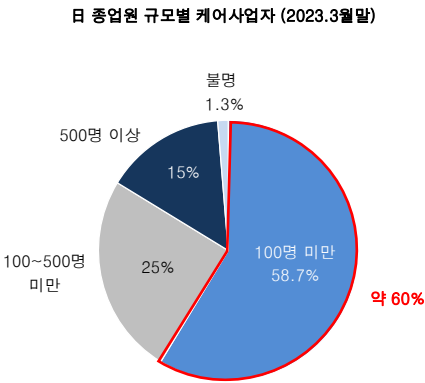
일본의 시니어케어 업계는 주로 지역에 거점을 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소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아 독점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업계였다.

최근 몇년간은 M&A 증가,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타 업계에서 신규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업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본은 종업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영세사업자 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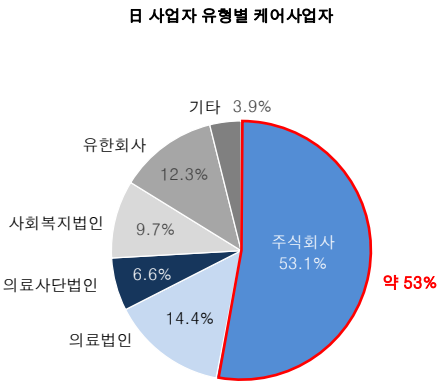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케어서비스의 본격적인 성장세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개인사업자 중심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70%를 차지한다.

그림 61. 日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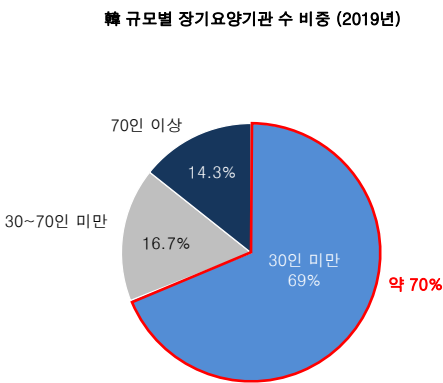
자료: 개호노동안정센터, 미즈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2. 日 주식회사 형태 사업장이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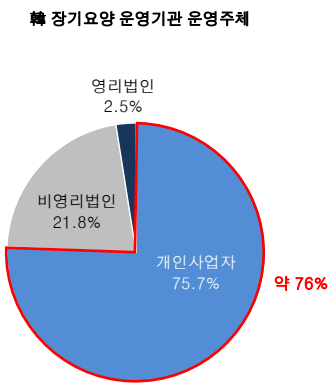
자료: KB골든라이프케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3. 韓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0%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연구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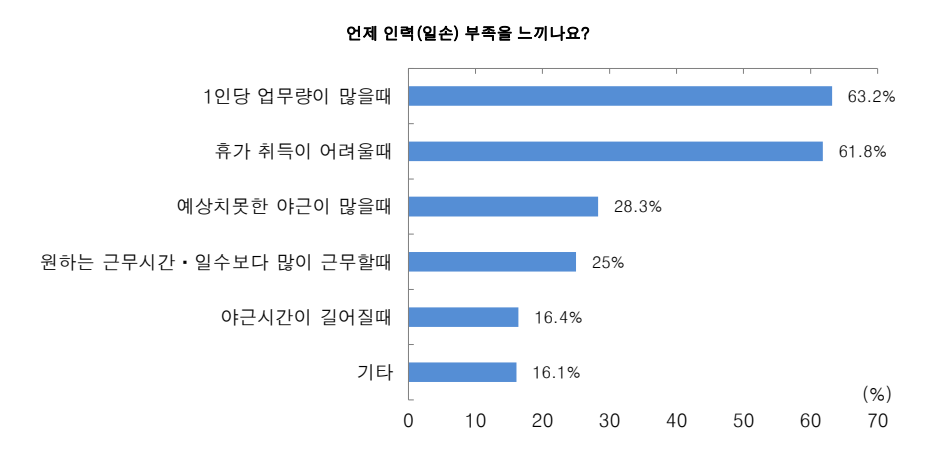
그림 64. 韓 개인사업자가 76%



자료: 보건복지부, KB골든라이프케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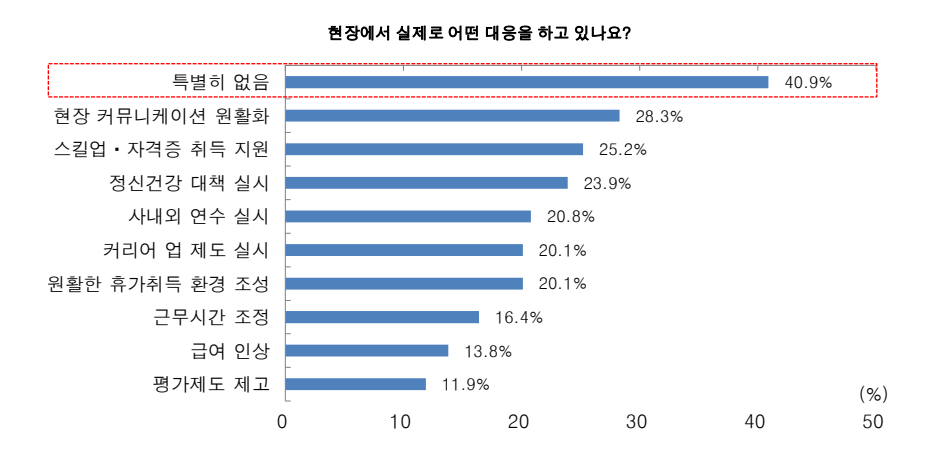
소규모 사업자는 비용증가와 인력난 대응에 기민하게 대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림 65. 日 현역 돌봄케어종사자 대상 설문 (2022년)



주: 일본 현역 돌봄케어 종사자(요양보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케이트 조사
자료: RICOH JAPA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6. 日 현역 돌봄케어 종사자 대상 설문 (2022년)



주: 일본 현역 돌봄케어 종사자(요양보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케이트 조사
자료: RICOH JAPA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시니어케어 업계 특징
②정책 영향 大

시니어케어산업의 사업모델 핵심은 개호보험제도에 기반한 요양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 수요가 높은 산업 특성상 정책 변경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은 3년마다 개정되는 개호보험 개정안에 따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자에게는 경영 리스크로 작용될 수도 있다.

최근 2024년에 개정 확정된 개호보험 개정안에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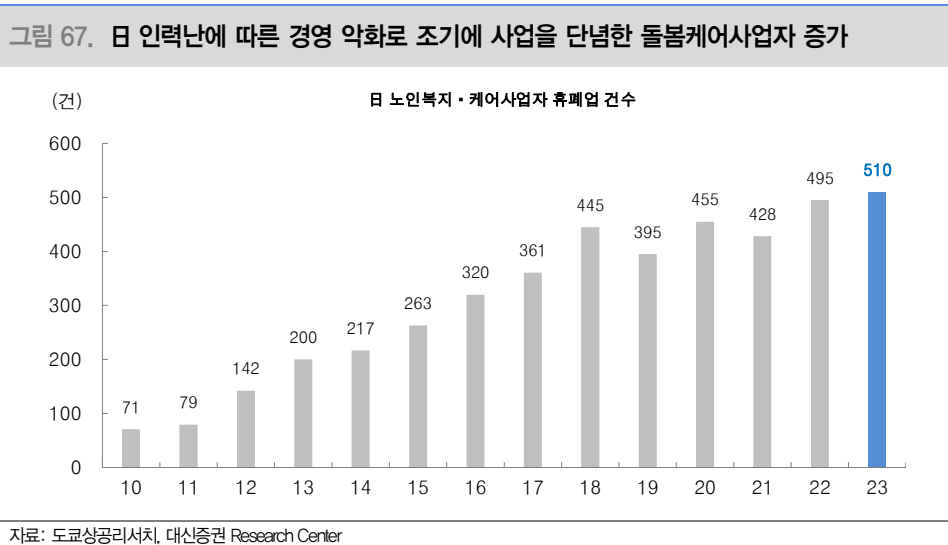
- 1)경영상황 공표 의무화: 모든 시니어돌봄케어 사업자는 1)재무제표 공표, 2)경영정보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시설별로 시기는 다르나 2024년 4월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된다. (돌봄케어사업장의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목적)
- 2)생산성향상추진가산제도 신설: 케어로봇과 ICT 기기 등의 기술을 도입해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케어사업장을 평가하는 가산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케어사업장은 가산보수를 받기 위해 1)생산성 향상 관련 위원회 설치, 2)정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돌봄케어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및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직원부담 경감 목적)

이 밖에도 감염병이나 재해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책정 의무화 시행 등 대응인력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소규모 사업자는
정책대응 여력 부족

감염병유행, 고물가, 정책대응 등 중소기업 부담 가중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노인복지·돌봄케어사업자]의 휴폐업 건수는 510건으로(전년비 +3%)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인력부족으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자가 도산전에 조기에 사업을 단념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변화로 방문케어 서비스 수익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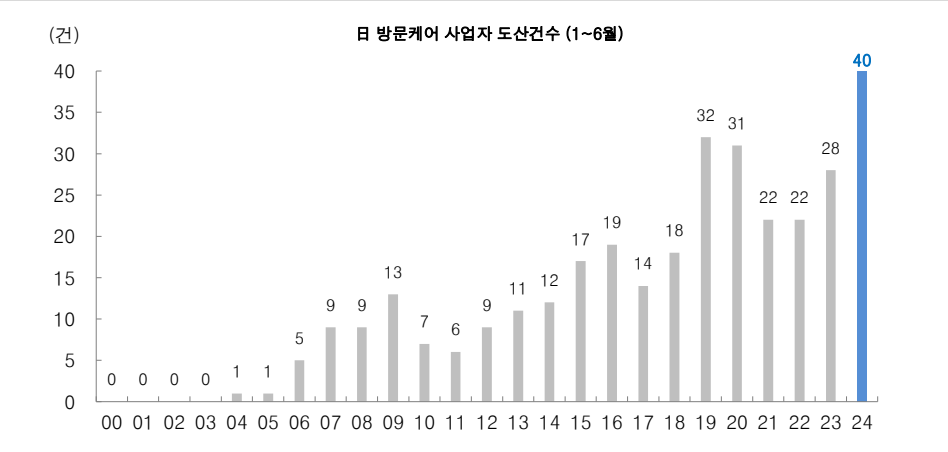
개호보수 인하로 적자운영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방문케어서비스]

방문케어는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신체케어와 청소, 세탁, 요리, 장보기 등의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의 가사간병도우미에 해당한다.

2024년 상반기 돌봄케어사업자의 도산건수는 총 8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방문케어사업장이 4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24년도 개호보험 개정 시, 방문케어의 기본보수가 약 2% 인하되면서 수익은 줄었는데 고물가로 비용은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방문케어서비스 이익률이 기타 서비스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기본보수 인하의 근거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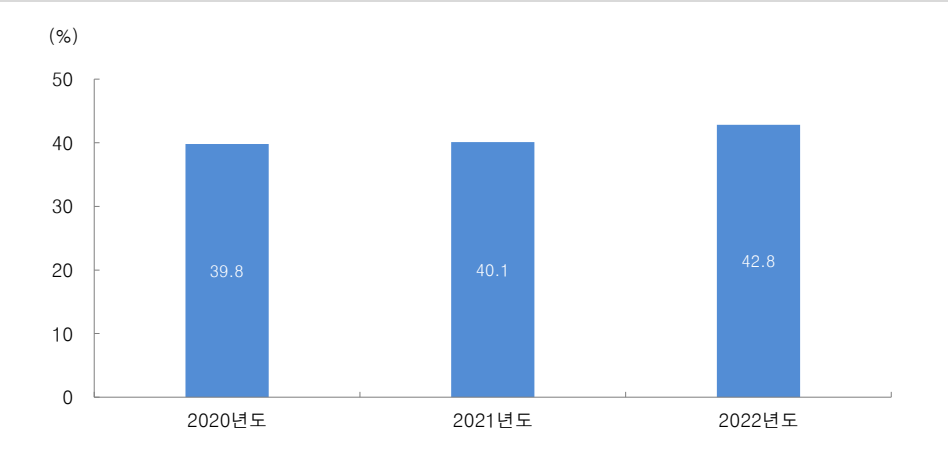
일본 정부가 케어난이도가 높은 중증자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적 정책을 펼치면서 앞으로 도 방문케어와 같은 경증자 서비스 사업장의 수익환경은 악화될 여지가 커 보인다.

그림 68. 日 방문케어사업자 도산건수 추이 (매년 상반기)



자료: 도쿄상공리서치,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9. 日 방문케어서비스 적자 운영 사업장 비율



자료: 일본복지의료기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II. 기업 사례 (Case Study)

日 대형사업자 중심
시장 재편

일본 시니어케어 업계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NPO법인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 초창기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중심에서 2000년 이후부터는 민간기업들의 활발한 돌봄케어 시장 참여로 다양한 케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2010년대 이후로는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며 품질 높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이 가능한 규모가 큰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Nichii, SOMPO, Benesse 그룹과 같은 매출 상위 대기업들은 현재 일본 전역에서 시니어 케어시설과 서비스를 전개중이다. 기업들마다 고유의 강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도 있다.

대표기업 공통점

日 매출 상위 기업 공통점

- ✓**사업영역 다각화:** 재택형(방문+통원)과 시설형을 모두 포함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니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돌봄케어사업 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보육 등 관련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많다.
- ✓**M&A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 M&A를 통해 중소규모 사업자를 흡수해 사업거점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를 도모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도 있다.
- ✓**전국 단위 사업 전개:** 매출 상위 기업들은 전국 각지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별로 상이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기술 활용(ICT):**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계 특성상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중요한 과제이며, 일본 정부 또한 기업들에게 기술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대형사업자를 중심으로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ICT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ex. 케어 기록현황 전자화, 야간돌봄시스템 구축,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 ✓**인재육성 주력:**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와 육성이 필요하다. 매출 상위 기업들은 다양한 연수제도와 커리어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재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기능제도를 활용한 해외인력 채용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시니어케어 사업모델

돌봄케어 사업모델 기본은 개호보험제도에 기반한 요양서비스 제공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요개호인정)을 받은 후 원칙 10%(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20%~30%)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나머지 비용을 개호보험에서 급여로 받게 된다.

최근에는 시니어들의 요양수요도 다양해지면서 100% 자기부담형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급 노인홈, 치매 케어 전문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돌봄케어 용품 판매 및 대여, 배리어프리 주택 개조 사업 등 돌봄케어와 관련한 주변 영역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중인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

표 5. 日 시니어 돌봄케어 분야별 대표 기업

분야	기업명		매출액	특징
종합 (토탈 케어)		니치이 HD	2,674 억엔	• 의료와 시니어케어의 두개 핵심축으로 사업 강화 • 창업 후 50년 이상의 실적과 높은 신뢰도 보유
		솜포 HD	1,772 억엔	• 이자카야 WATAMI로부터 사업 인수(M&A) • [SOMPO 케어] 브랜드 전개
		베넷세 HD	1,393 억엔	• 다양한 가격대의 시니어하우징 브랜드 전개
시니어 하우징 (유료노인홈 & 사코주)		각켄 HD	785 억엔	• 치매고령자주택인 그룹홈으로 확장
		메디컬케어서비스	370 억엔	• [愛の家(사랑의 집) 브랜드 전개
치매 고령자 주택 (그룹홈)		츠크이	920 억엔	• 일찍부터 시니어 업계에 참여해 노하우 풍부 • 투자펀드 TOB를 통해 비상장화
		케어21	410 억엔	• 간사이지역 기반의 재택형 케어서비스 전개
		파라마운트베드 HD	1,060 억엔	• 의료 케어용 침대 분야 대표 기업
케어용품 (복지 용구)		프랑스베드 HD	591 억엔	• 가구 인테리어와 케어용품 사업 전개
		엘란	414 억엔	• 서비스 렌탈 사업 전개
호스피스 (임종 케어)		암비스 HD	319 억엔	• 간토, 도호쿠지역 중심으로 의료 호스피스 전개
		일본 호스피스 HD	98 억엔	• 임종기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운영

주: 매출액 기준 상위 3사 붉은색으로 표시
자료: 회사사계보 업계지도 2025년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①M&A 증가

M&A(인수합병)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

돌봄케어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선 일본은 기업들간 M&A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시니어케어 업계는 고령화 진행으로 돌봄케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인력확보와 사업승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자 인수합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수합병 사례는 크게 다음의 3개 유형으로 나뉜다.

- 1) 적자운영 상태인 소규모 사업장들간의 M&A
- 2) 대기업의 중소형사업장 M&A
- 3) 타 업종에서 신규 시장 진입 목적 M&A

최근에는 일본기업들의 해외사업자 인수합병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M&A 배경, 장점

돌봄케어기업 M&A 장점

돌봄케어사업장을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업규모와 매출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개호시설 총량규제로 신규 인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돌봄케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규모 확장 난이도가 높는데 M&A를 통해 기존 사업장을 인수함으로써 시니어케어 업계 진출이 수월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사업장을 양도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서비스를 승계함으로써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니어가 계속해서 지역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M&A를 통해 단독 추진이 어려운 IT, 디지털화를 실현시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호DX 실현으로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직원의 급여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

**개호시설 총량규제: 2006년 개호급여비용 억제를 위해 간병직원을 간병시설내에 배치해야 하는 개호보
험시설 및 개호형 유료노인홈의 신규 정비량을 각 지역, 지자체별로 규제(사실상 신규 개설 억제)*

M&A 사례

하기 그림은 일본 시니어케어 업계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이 중 실제로 M&A가 있었던 기업들을 화살표로 표시해 보았다.

크게는 동일 업종내 돌봄케어 기업들간의 인수합병과 타 업계에서 돌봄케어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2개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①~② M&A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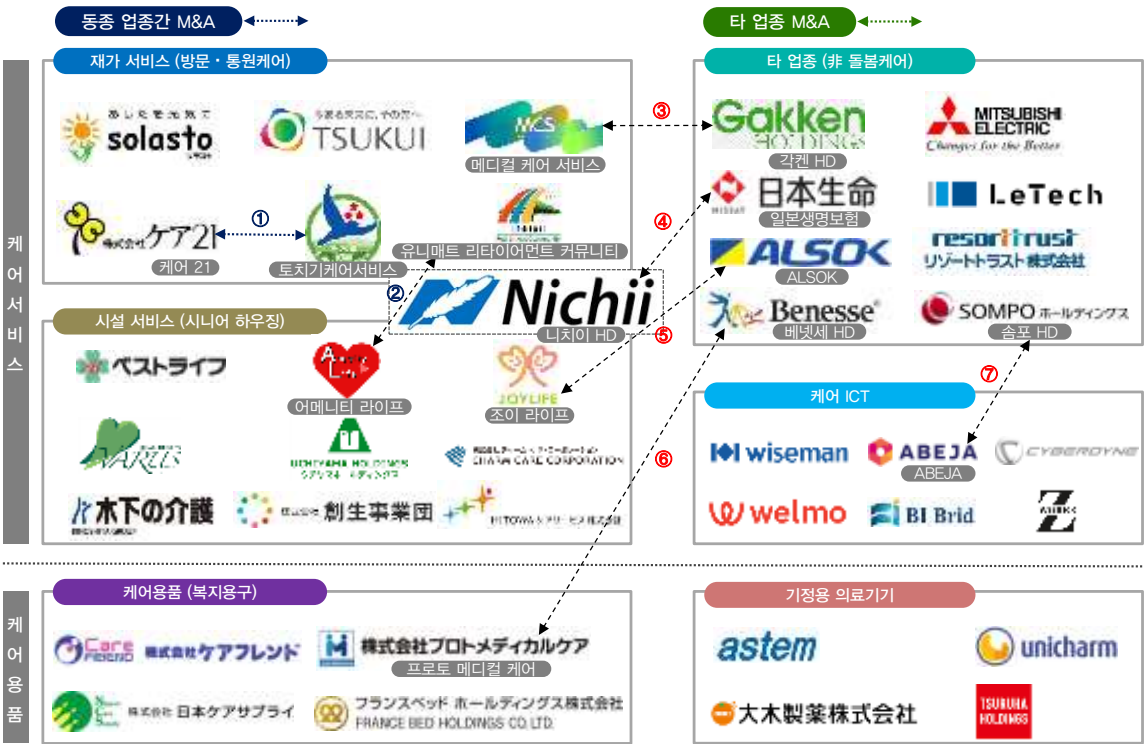
①은 방문·통원케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간 M&A 사례로 자본, 인재 등의 경영자원과 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인수합병 실시

②은 방문·통원케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시니어하우징 운영 기업간의 M&A 사례로 양사는 M&A를 통해 서비스의 폭을 확대해 사업 다각화에 성공

✓③~⑦ M&A 사례

③~⑦은 교육, 보험, 경비보안 등 타 업종에서 시니어케어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다. 자본력을 갖춘 이들 대기업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케어기업들 또한 대기업과 손을 맞잡으면서 인지도 향상과 경영난에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림 70. 日 시니어 돌봄케어 기업 주요 M&A 사례



자료: arts&craft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②기술 활용 증가

스마트 기술 활용 증가 - ICT, AI

돌봄케어업계에서도 ICT, AI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보조금(가산제도)을 지원하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명 ‘개호DX’, 상세 내용은 44페이지 참조)

기술 활용 사례: AI

시니어케어 ICT 활용 사례 - ① AI

케어 플랜 작성: 케어 플랜(Care Plan)은 돌봄케어가 필요한 이용자의 건강상태, 가족과의 생활환경, 희망사항 등을 반영해 돌봄방침, 해결과제, 제공서비스 등의 내용을 기록한 계획서로 요양등급을 받은 시니어가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케어 매니저라 불리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해 수작업으로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있는데 점차 AI 기반의 분석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맞춤형 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AI를 활용한 케어 플랜 작성은 아직 보급단계로 보편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AI는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에 불과해 평가와 모니터링 등 케어 플랜의 최종 판단은 케어 매니저가 담당한다.

AI 활용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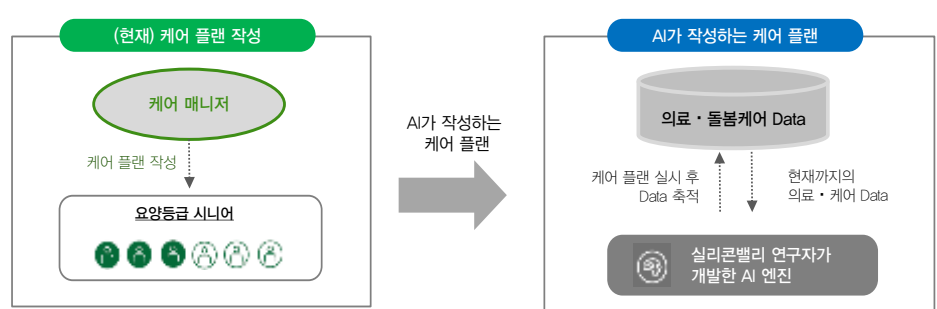
시니어케어 AI 활용 장점과 과제

돌봄케어업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케어기록 자동화, 이용자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고 케어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데이터의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윤리적 과제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특히 돌봄케어서비스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니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림 71. AI를 활용한 케어 플랜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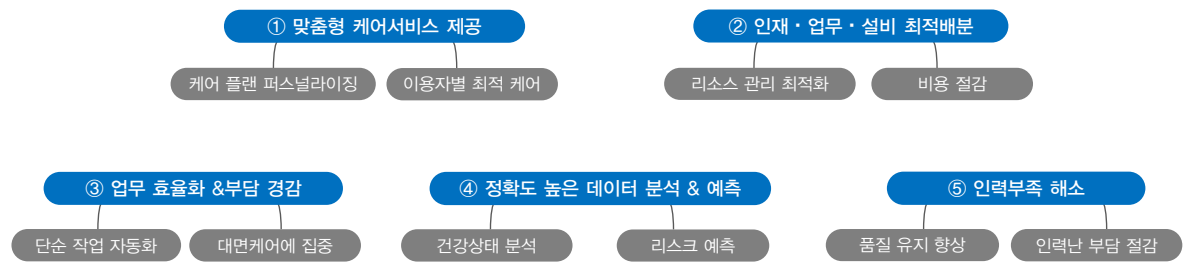
자료: 딜로이트, 경제산업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6. 시니어케어 × AI 활용도

AI 활용	상세 내용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효율화	(자동화 자원): 시로 케어직원들의 작업을 자동화해 업무효율 향상. 본연의 대면케어와 전문 업무에 집중 가능 (케어 플랜 작성 최적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 최적화된 개별 맞춤형 케어 플랜 작성
건강상태 예측 및 조기 대응	(건강 데이터 모니터링): 시가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측 분석): 시로 질병위험이나 건강악화를 예측해 예방케어 실현
케어 로봇 활용	(신체적 자원): 이동 시 또는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 시탐재 로봇이 신체적 지원을 통해 케어직원 부담 경감
업무 관리 및 운영 효율화	(근무 시프트 관리, 자원 배분): 시가 직원 근무 시프트, 업무 스케줄, 리소스 등을 최적 배분
개별 맞춤형 돌봄케어 제공	(맞춤형 서비스): 시가 시니어 개별 수요와 선호도를 학습해 최적화된 케어서비스 제공
리스크 관리와 안전 확보	(리스크 감지): 시가 이상행동이나 위험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사고, 부상을 사전에 방지 (안정성 향상): 시가 시설내 안전·보안 상황을 감시해 침입이나 안전 리스크를 자동 감지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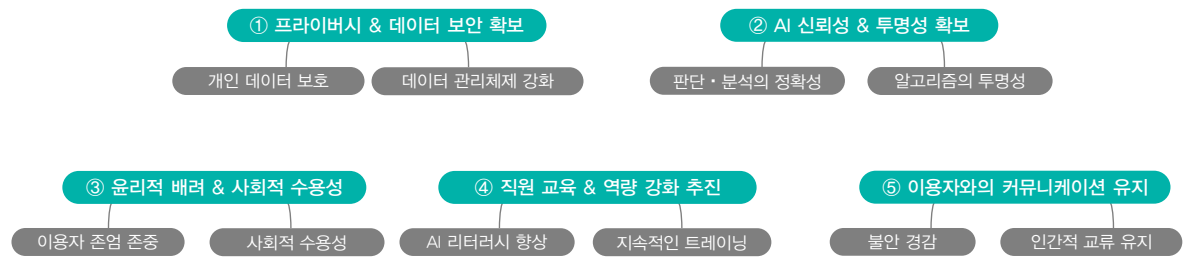
자료: AI종합연구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2. 시니어케어 AI 활용 장점



자료: AI종합연구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3. 시니어케어 AI 활용 과제



자료: AI종합연구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술 활용 사례: 로봇

시니어케어 ICT 활용 사례 - ② 케어 로봇

로봇은 정보를 감지해(센서형), 판단하고(지능·제어형), 동작하는(구동형) 3개 기술 요소를 가진 지능화된 기계 시스템으로, 케어 로봇은 이러한 기술(센서, 인공지능, 로봇공학)을 융합하여 인간의 돌봄 활동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로봇 시스템을 말한다.

주로 고령자,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생활 지원, 재활, 의료 보조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日 정부 로봇 개발·도입 장려

일본 정부는 케어 로봇 개발·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로봇 개발비용과 케어 로봇을 도입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은 수요가 높고 로봇기술 도입 효과가 기대되는 중점 분야와 항목을 정해 케어 로봇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총 9개 분야 16개 항목)

정부가 정한 케어 로봇 개발 중점 분야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로 민간기업을 주축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기업: 제조기업(파나소닉, 혼다 등), IT기업(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등), 로봇개발 벤처기업(CYBERDYNE 등), 시니어케어기업(SOMPO케어, Benesse스타일케어 등)

케어 로봇 도입 효과

케어 로봇을 활용하면 1)케어직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완화, 2)케어업무 효율성 향상, 3)케어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4)돌봄을 받는 시니어 본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주어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케어현장 기술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결과(2023)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요통 완화: 이승보조 로봇 도입으로 케어직원의 허리로 가는 부담이 평균 30% 감소

✓야간순회업무 감소: 돌봄시스템 도입으로 야간순회 횟수 평균 약 50% 감소

✓낙상위험 저하: 돌봄센서 도입으로 낙상사고 발생률이 평균 약 20% 감소

✓재활효과 향상: 재활지원 로봇 도입으로 이용자의 운동기능이 평균 약 15% 향상

✓케어기록 작성시간 단축: 케어기록시스템 도입으로 작성시간이 평균 약 30% 단축

케어 로봇 보급 현황

케어 로봇 도입을 검토중인 사업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입비용과 조작방법 학습, 도입효과에 대한 의문 등의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는 곳들도 많아 케어 로봇 보급률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시설 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도입률이 높은 곳은 입소형 시설이며, 방문·통원케어 등의 재택형(재가 서비스)은 케어 로봇 보급이 느린편이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케어 로봇은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행동과 바이탈 데이터(Vital Data)를 모니터링하는 돌봄형기이다. (2021년도 기준 케어로봇 보급률: 이승보조 9.7%, 이동지원 1.2%, 배설지원 0.5%, 돌봄·커뮤니케이션 30%, 목욕지원 11.2%, 케어업무지원 10.2%)

그림 74. 日 정부가 장려하는 케어 로봇 기술 중점 분야 - 총 9개 분야 16개 항목

①이승 보조



이승 보조
(장착형)

②이동 지원



이동 지원
(실외이동)

③배설 지원



배설 지원

④돌봄 · 커뮤니케이션



케어시설 돌봄

⑤목욕 지원



목욕 지원

이승 보조
(비장착형)



이승 보조
(비장착형)

이동 지원
(실내이동)



이동 지원
(실내이동)

배설 지원
(배설예측)



배설 지원
(배설예측)

재택케어 돌봄



재택케어 돌봄

이동 지원
(장착이동)



이동 지원
(장착이동)

배설 지원
(동작지원)



배설 지원
(동작지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⑥케어 업무 지원



케어업무 지원

⑦기능 훈련 지원



기능 훈련 지원

⑧식사 · 영양 관리 지원



식사 · 영양 관리 지원

⑨치매생활 · 치매케어 지원



치매생활 · 치매케어 지원

주: ⑦~⑨는 2024년 6월 개정 추가된 항목
자료: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5. 케어 로봇 예시 (이승 보조)

장착형 파워 어시스턴트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6. 케어 로봇 예시 (이동 지원)

보행 보조 카트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7. 케어 로봇 예시 (배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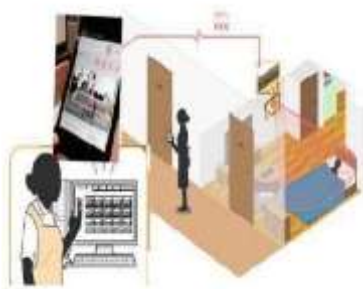
자동 배설처리 장치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8. 케어 로봇 예시 (치매 환자 돌봄)

돌봄 센서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9. 치매 테라피 애니멀 로봇 [PARO]



자료: 국립연구개발법인산업기술종합연구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0. 커뮤니케이션 로봇



자료: 미쓰비시종합연구소DC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1. 日 케어 로봇 개발 기업 사례 - ①Panasonic (자율배송, 이송보조 로봇)

[병원·돌봄케어시설] 파나소닉이 제안하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솔루션



자료: Panasonic AGE-FRE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2. 日 케어 로봇 개발 기업 사례 - ②SECOM×DeNA (돌봄·커뮤니케이션 로봇)



자료: CNET Japa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3. 日 케어 로봇 개발 기업 사례 - ③CYBERDYNE (로봇 슈트)

HAL(Hybrid Assistive Limb): CYBERDYNE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장착형 로봇 슈트



자료: CYBERDYN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4. 日 케어 로봇 개발 기업 사례 - ④DFree (배설지원 로봇)

DFree Professional (의료 · 케어시설용)

Monitor Analyze Notify

DFree Home Care (개인용)

무게 90g 두께 12mm 초소형타입으로 외출 시 눈에 띄지 않음!

[Dfree]

- ✓ 세계 최초 배설예측 디바이스
- ✓ 소형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 하복부에 센서 장착 → 방광 변화 예측 → 스마트폰 ·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설 타이밍 알람
- ✓ 2017년 의료 · 케어시설용
- ✓ 2018년 개인용 서비스 개시

자료: DFree(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결론

시사점 1) 韓 현재 시니어케어 초기시장. 재가요양서비스 중심의 폭발 성장 기대

2000년 이후 일본의 시니어케어시장 변천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 도입(2000) 후 재택형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시니어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선호하고 정부도 재택형서비스를 장려했기 때문이다. (재택서비스가 시설서비스 대비 상대적으로 비용 저렴)

한국 역시 초기에는 재가요양서비스(재택형)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방문형과 데이케어시설(일명, 노치원)과 같은 통원형, 복지용구 대여가 모두 재가요양서비스에 해당한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시설형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시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니어들의 건강상태와 경제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케어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계획(2018)을 지속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노인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업들과 관련 서비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택개보수, 시니어하우징, 주민건강센터, 간호·재활서비스, 돌봄케어, IT 디지털케어, 복지용구·보조기기, 사회적 기업 등)

시사점 2)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 진출·M&A로 시장 재편 불가피

한국의 시니어케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다만 비용부담과 돌봄인력 부족은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올해 초고령사회 원년에 들어선 한국은 단기간에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개인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 특성 상 쉽지 않은 환경이다. (한국 30인 미만 장기요양기관 70%, 개인사업자 76%)

일본은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돌봄케어 시장에 진출한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본력과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돌봄케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본은 시장 재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ICT,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반면 지역내에서 특화된 서비스(지역밀착형)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대기업과 중소형 돌봄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나미선)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